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 행 인 박 필 수
편집인겸 손 주 영
편 집 장 이 성 환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 대 학 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형

제497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9월 6일 (화요일)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

회칙통과로 올해 11월선거부터 분리실시

9월2일 (금) 용인캠퍼스 확대운영회의에서 「학생회회칙개정시안」이 통과됨에따라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총학생회선거부터 서울·용인캠퍼스가 분리실시된다.

이는 3일 (토) 오전12시 학생회관 열람실에서 열린 용인캠퍼스 확대운영회의에서회칙개정안건에 대한 전체38명중 20명이 투표해 찬성18표 반대2표로 가결됨에 따른것이다.

개정된 시안을 보면, 기존회칙에는 없던 전문이 포함되었고 「지도위원회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제4조 총학생회장후보등의 자격을 명시한 피선거권 3개조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통과된 학생회 회칙은 지난학기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작업에 들어가 지난 5월7일 서울캠퍼스 확대운영회의때 통과된바 있다.

황의설, 김사준씨 정년퇴임식 가져

기획조정처 황의설 기획과장과 총무과 김사준씨가 지난8월27일 (토) 오전11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8월31일 (수) 자로 정년퇴임했다.

기획과장 황의설씨는 1969년 2월부터 본교에 재직하여 이사장, 총장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고 총무과 김사준씨 역시 같은 해부터 20년간 본대학 교육행정직에 근무해왔다.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산하 「공동올림픽쟁취특위」 발족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회 산하 「8·15 학생회담보고및 분단·독재올림픽 저지와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8월30일(화)오후 2시30분 경원대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본교생 80여명을 포함, 모두 4백여명의 용인·성남지구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5명의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대표한 강기섭군(경원대, 건축학과) 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통일의 결대적 장애세력인 미제와 노태우 일당을 처단하고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광주학살 부정비리의 원흉 전두환, 이순자의 처단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1시간 30여분 동안 교문앞에서 「분단올림픽 저지하고 공동올림픽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고 자진 해산했다.

민주 동우회 8일~11일 「모교 찾는 날」행사 개최

「민주외대동우회」는 9월8일 (목) 부터 11일 (일) 까지 대강당및 대운동장에서 「모교찾는 날」 행사를 갖는다.

각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홍보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8일 (목) 송영 민주외대동우회장 (독어과 59학번·소설가) 과 김남일씨 (화란어과 76학번·소설가) 의 문학강연 회를 시작으로, 9일 (금) 에는 윤용교수(영어과 59학번·고대신방과) 의 시국강연회, 10일 (토) 에는 외대출신 각언론사 현직기자들의 「언론분야 취업 강연회」 가 각각 열리고 11일 (일)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문화제, 체육대회를 끝으로 폐막된다.

「연결」 제4회 정기공연

용인캠퍼스 극예술연구회「연결」제4회 정기공연이 오는 9월8일 (목), 9일 (금) 양일간 오후5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테네시 윌리암스 (Tennessee Williams) 작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1940년대 미국 빈민가를 배경으로한 당시 급변하고 기계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한 여인의 운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간, 노어과 12~14일「산송장」공연

야간강좌 노어과 「보나로드」극회는 「산송장」을 9월12일 (월) 부터 14일 (수) 까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19세기말 러시아 귀족층을 배경으로 인간성 회복과 사회를 비판한 톨스토이의 희곡이며, 배수한군 (3학년) 이 연출, 배관수군 (4학년) 이 기획했다.

용인, 「간부수련회」 가져 2학기 사업계획및 일정논의

용인캠퍼스 간부수련회가 총학생회장, 각단대학생회장을비롯한 29개 과회장, 과대표등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2일 (금), 3일 (토)양일간 학생회관앞5·18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통령, 전체토의, 비디오 상연등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총학생회 2학기 사업일정, 복지위원회 사업보고 및 계획, 학회개정시안 통과유무등 1학기 사업보고와 2학기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총학생회 2학기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6일 : 정기학생총회▲9월12일~16일 : 민족통일을위한 모의올림픽▲9월17일 : 반전반핵 평화용호주간선포▲10월10일 : 자주강좌▲10월중순 : 총여학생회 건준위 발족▲11월 : 단대, 여총, 총학 선거

용인캠퍼스 교통문제가 일정부분해결되자 버스주차문제가 또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이번 학기 버스가 증차된후 통학시간에는 10대가 넘는버스가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버스하나 지나다닐 틈이 없을 정도이다.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좀더많은 버스의 증차도 절실하지만 또한 절서있는 주차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차장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글·사진 : 한성원기자>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 설문조사

학교행정에 70%가 부정적

홍보정책·교양과목부족·복지등 문제로지적

지난8월25일 (화) 부터 31일 (수) 까지 총학생회 산하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의 정책및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학기에 진행될 학원민주화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것인데 서울캠퍼스 학생 1천2백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해 이중 회수된 1천배를 기초로 결과를 산출했다.

이에따르면 외대인으로서 못마땅한 점으로 26%의 학생이 공간부족, 22.9%가 시설미비를 들고 있다. 또, 외대의 홍보책에 대해서는 90.3%의 학생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우수신입생유치에 대한 학교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88.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다.

현재, 중간고사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과거대로 기간을 설정하자」가 42.8%, 「현재가 좋다」는 대답은 15%에 불과했다. 교과과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교양부족 (54.8%) 을 첫번째로, 교과목 증설과 커리큘럼개정 (21.8%) 을 다음으로 꼽았다.

한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미흡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도서관 휴게실은 50.9%, 구내다방 청결도는 65.8%, 구내식당 메뉴와 판매시간에 대해서는 각각55.4%, 72.7%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총학「제2회 애국자대회」가져

총학생회주최 「제2회 애국자대회」가 지난 8월31일(수) 오후4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대회는 식전행사로 북한에 관한 슬라이드가 상영되었고, 본행사에서는 8·15남북학생회담 평가및 투쟁방향, 학민사업에 관한 제반사항보고, 총결의문낭독, 서준식씨 초청강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김형진군 (동양·태국어4)은 공동실천 결의문을 통해 「당면 투쟁에서 아직도 종파적 모습을 보이며 공동의 투쟁 전선을 형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단결된 투쟁전선으로 광주학살·부정비리 진상규명및 책임자 처벌, 조국통일 촉진 투쟁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규탄대회」열려 시위중 3명부상, 일일찻집도 운영

「8.15남북 학생회담」과 관련, 지난달 구속된 단대학생회장 3인의 석방을위한 규탄대회가 정과대·법대·상경대학생회 공동주최로 9월1일 (목) 오후3시 풍일광장에서 열렸다.

약1백5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규탄대회는 정과대학생회장 권한대형 안승호군 (신방·2) 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상경대학생회장 권한대형 김범수군 (무역·3) 은 규탄결의문을 통해 「8.15학생회담을 유혈진압하고 학생회장 3인을 불법구속한것은 정부의 반통일 의지를 드러낸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교문으로 진출해 전경들과 맞서 투석전을 벌이던 학생들중 김시용군 (동양·아랍2)등 3명이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했는데, 김군은 현재 서울 위생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고 침

본보 496호(8월30일자)학술상 수상작 발표 기사중 인문과학부문 가작 입선자인 주성호군(서양·불어3) 이 주승호로 오기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용인「써연」 운영위원회 개최

용인캠퍼스 써클연합회 주최 「써클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1일 (목) 오후5시30분 써클연합회실에서 열렸다.

써연재기간은 학생회날 기념주간인 10월31일 (월) 부터 11월4일 (금)까지로, 써클별 행사 모집공고기간은 9월5일 (월) 부터 11일 (일)까지로 각각 확정됐다.

사 령

입

정 기 자

김기원 (법·법학1)
김창섭 (동양·일어1)
박영숙 (동양·아랍어1)
박종진 (문리·철학1)
이상필 (동문·일어1)
임재권 (문리·철학1)
장제욱 (상경·경제1)
최윤현 (동문·스와힐리어1)
한성원 (동양·마인어1)
한정일 (사법·한교1)

<이상 10명 9월6일자>

컷·촉탁기자 : 김진태 (야간·서반아어1)

면

권영희 (동양·중국어1)
김구산 (정과·정외1)
이준규 (동문·마인어1)

원에 의해 사임

<이상 3명 9월6일자>

바꾸자

▲북한 로동신문 공개한다고
—우익은 죽었는가 (?)
▲경찰 투석으로 부상속출
—누가 시위를 하는건지…
▲총학, 양캠퍼스체제로 분리
—1+1=단결

펜하나와 죽창

▲육체와정신을 분리시킬수 없듯이 문학과 표현의 자유는 발생·발전·존립의 근거인 구체적 현실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 역사적 의미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무시한채 이념적 마지노선 (?) 을 정할수 없다.

부정과 거짓,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는 쥐일수 없는 명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며칠전 체제와 사상을 달리하는 세계각국의 문인들 모임인 제52차 국제펜대회가 열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현정권이 양심적 문인들을 0.7평의 차디찬 감옥속에 가둬놓고 온갖 탄압을 일삼는 현실속에 개최됐기에 더욱 그러했다.

4·3제주민중항쟁을 민족주의적 관점하에 조명하는 시를 지었다고해 그 작가를 고문·투옥하는 현정권이 국제펜대회를 자신의 안정적 정권기반을 위해, 그리고 문학인들의 탄압상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음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게 했던것은 펜대회기간중 한국대표문인들이 보여준 행위이다. 가장 순수해야할 문인들이 정권의 안보이데올로기에 흠뻑 젖어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안이 「한원서 제출」이 제작되자는 안이 「한원서 제출」이 제작되자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고싶을 따름이다.

▲한시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대중이 어떠한 이념과 가치의식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 올바른 문학종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국제펜대회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한 문인들은 이러한 명제를 너무나도 완벽히 무시한 작태를 연출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거역할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독재가 강요해온 획일적 이데올로기앞에서 곡두각시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펜잡이들은 다시한번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새날을 향해 드높일, 그리고 지양해야할 시대에 종이 한장이 죽창이 되고 펜하나가 비수가 되어 이땅 모순의 척결을 위해 불패의 무기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오상윤>

제40기 수습기자 원서마감 박두

시험일시 : 9월7일(수) 오후5시30분

말 못하는 우리시대, 그러나 우리들의 손으로 장사 (葬事) 를 치를수는 없습니다. 허황된 만신창이 민주는 다시 살아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을 끊임없는 비판과 실천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압제의 시대속에서도 바른말을 할수 있는 용기있는 자를 찾습니다.

△자 격 : 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 : 일반기자 ○○명, 사진·컷기자 각○명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본사 소정양식) 1통, 사진 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 서울—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12호)

▲원서접수마감일 : 9월7일(수)

△시험과목 : 1차 필기시험—국어 (한문·기사작성포함), 상식, 논문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1차시험장소 : 서울—사회과학관 308호
용인—교양학관 214호

외 대 학 보

진리·평화·창조

國際化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방송 민주화는 국민의 뜻대로
—MBC,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방송사상 최초로 파업까지 단행, 5일동안 정상방송을 하지 못했던 문화방송사의 분규가 지난달 30일 일단락 되었다. MBC의 파업이 타결된 같은날 한국방송공사 노조는 미타결된 7개항의 관철을 요구하며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지난 9월1일부터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준법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작금에 전개되는 이러한 사태를 보며 우리는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언론자유쟁취를 위한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

80년 전두환정권이 등장한 이후 자행된 물리적인 언론사 통폐합과 반민주적인 언론기본법제정등의 제반 언론탄압은 한국언론사(史)에 실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 수있다. 당시 정권의 탄압에 합거해 언론자유를 주장한 기자들의 즉각적인 해고조치및 구속등, 언론의 시녀화 작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계기로 국민앞에 선보인 MBC와 KBS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곡·편파보도의 선두주자로 이땅 한반도를 암흑속에 몰아넣는데 일조했다.

특히 지난 87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이를 입증하고있다.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이렇게 성장된 국민의 외식수준은 더이상 왜곡된 언론의 자세를 용납하지 않았고, MBC와 KBS 노조 역시 이러한 언론왜곡의 범죄를 다시짓지 않기위해 회사측과 정부측에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쟁의가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의 추천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점에서도 쉽게 알수 있다.

그러나 MBC가 분규의 타결을 보았다고는 하나 공정방송을 위한 최선의 요구조건 달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보도·편성·제작책임자의 자격 요건의 모호한 규정부터가 그렇고 최종적인 임명권이 결국 사장에게 부여되어 있거니와, 진정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산재 (散在) 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막대한 권한을 위시한 심의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계등의 조치, 방송내용을 정기적으로 문공부장관과 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등 방송법과 함께철폐되어야할 독소조항은 이루 헤아릴수조차 없다.

언론은 언론인의 것만은 아니다. 언론은 국민의 귀이며 눈이며 입임에분명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부패한 사회속에서 언론인이, 국민 모두가 해야할일이 자명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 그동안 억압적 사회구조속에서도 바른 말을 하다가 투옥된 언론인의 석방과 이의 복직은물론, 현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언론노조가 보다 근본적 모순의 척결에 까지 접근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화의 초석이라 할수있는 언론의 자유는 결코 안일과 나태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올림픽·극우·군부」의 삼각동맹

◇최근의 극우발언과 올림픽 이후의 군부개입설을 분석한다

이 성 룡
〈자유언론 기자〉

Ⅰ. 들어가는 말

폐부의 어느 뒤여 소령의 말을 빌면 『군인은 그 지적구성상 애매함을 참지못하고 그의 심성은 토론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 명령과 복종의 오랜 습관은 그에게 민주정부를 구성할 능력을 앗아간다』고 한다.

최근 정국을 강타한 이춘구 내무부장관의 「이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라는 글의 단행본 배포, 김용갑총무처장관의 올림픽이후 체제수호를 위한 중대결단 발언, 그리고 오흥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에 대한 테러,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한결같이 군출신 또는 현역군인에 의해 저질러져 사회전반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지난 8월 2일 필리핀외유중 「개인의 소신」 이라는 전제를 달고 밝힌 윤길중 민정당대표위원의 「내각제로의 개헌」 발언과 함께 그동안 조심스럽게 전망해왔던 올림픽이후 정국동향의 「태풍의눈」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은 지난 8·15화생회담저지에 나선 반공단체들의 시위와 함께 과잉과 우익의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가뜩이나 올림픽이후 정국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보수야당을 또한 정치권에 합상 음산하게 깔려있던 군부와의 평평한대치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나하며 한껏 음츠리면서 「여권내의 치밀한 음모」「고도의 계산된 포석」등 여러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중 국민의 초미의 관심대상은 심심치 않게 나돌던 올림픽이후 초헌법적인 「무엇」을 겨냥한 전주곡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군부가 계엄이나 쿠데타를통해 민주화의 싹을 다시한번 짓밟고 정치전면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사실 군내부에는 사회전반에서 일고있는 군에대한 비판에 발끈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군부의 개입은 가능하며,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것인가? 이를 군부개입의 이론들을 통원,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몸 말

군부의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치화된 모든 군대는 대체로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조국을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군인의 신성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것과 「국가이익」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것이다.

▲사진은 지난8월14일 「화국청년연합회」가 「남북화생회담 반대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울대학생회 앞에서

최근발생했던 오흥근 중앙경제신문사회부장에 대한 테러는 이러한 맥락에서설명되어진다.

또한 지난 6월11일 전역한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의 전역사에서 표출된 분노와 이에 대한 군내부의 광범위한 지지분위기는 독자적영역을 지키려는 군부에대한 비판을 적대시하했다는 위협이라 할수있다.

명백한 위기라 할은 경쟁적인 정치세력들이 폭력을 사용할 만큼의 잠재적 내란이나 내란 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잠재적 위기라 할은 소수가 통치하고 대중은 이를 증오하나 타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위나 알삼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른다. 그리고 힘의 공백 상태라 할은 어떠한 조직적 공백상태를 들 수 있겠다.

유화분위기는 민족민주세력 탄압은폐 의도

우파준동은 위기감 조성, 보수대연합의 포석

이와같은 생각은 자신들의 결정이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믿음으로 전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제도적 여러 문제들이 현실보다 더 쉽게 조절될수 있으며 대증적 이해나 편견, 제도적장치, 장애물, 정치적, 경제적 관계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 에의 호소는 거의 위선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군부의 이해가 보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행하는,즉 한지역의 보호에서 한계급의 보호로, 한계급의 보호에서 제도로서의 군부 이해의 방어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개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 가는 과정에서 투쟁이 볼 수 있다.

먼저,군부내의 정치장교들은 특정 지역출신으로 구성되거나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정치개입의 동기로 작용될 수 있다.현재 정치군인의 인맥은 영남출신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TK마피아단」으로 불리우는 대구·경북출신이 주요직을 장악하고있다. 이들은 여타지역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득권이 무너질 때 크게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둘째, 군부집단의 조직적지위와 이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치개입의 가장 강한 요인이다.

셋째로 군부는 중간계급의이해를 자신의 이해로 동일시 하고있으며 이에대한 기층민중의 도전이 엿보일때 군은 정치에 개입한다.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군의 역할은진보적이지만 사회가 진보하려 할 때나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군은 보수적·반동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후진적인 사회에서 군은 중간계급의 정치참여를 선도하는 선봉장이 되지만 하층계급의 정치적진출이 강화되면,이의 대항 체제를 보호하려는 보수적 노력을 전개한다.

네째 개인의 출세욕에 의한 정치개입이다. 사회적 계층구분이 뚜렷하고 군외사회적 지위향상이 막혀있을 때 군부는 쿨리력을 통원 사회구성 자체를 지배하는 집단으로 들어 가고자 한다.

이와같은 예는 60년 5.16군사쿠데타에서 엿볼 수 있다.

국군은1950년대 중반까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평창함으로써 진급이 급속히 이루어 졌으나 50년대 중반 이후 군의 평창은 중지부를 찍고 감축까지 검토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은 육사7,8기생들의진급을 가로막았으며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들은 박정희소장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키며 이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군부개입의 동기는 앞맞은 기회를 포착할 때 현실화 된다. 그 앞맞은 기회란 국내외 명백한 위기와 잠재적 위기, 그리고 정치권력의 정치운동도 힘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적 견해가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이다. 한국에서 힘의공백상태는 79년10·26이후 상황을 들수 있다.박정희가 쓰러지자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있었으며 야당 또한 심한 분열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틀고 들어온 세력이 12·12세력이다.

이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움직임의 내막을 분석하고 군부의 개입 기능성을 예측해보자.

극우세력움직임의 내막

김용갑총무처장관은 올림픽이후 체제수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체제수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헌을 들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민투표 이전에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있다.

또한 체제수호를 위한 개헌을 중간평가와 결부시켜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통과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수단이 헌정을 중단하는「비상조치」이다. 「비상조치」는 필히 군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지적한 군부의 개입의 동기와 기회에 준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노정권하에서 군부는 이미감시자나 조정자의 역할이 아닌 대치할 대란의 조짐은 없으며 힘의 공백 또한 있지않다. 그리고 잠재적 위기는 항상 있어왔으며 군이 개입할 만큼의 일미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 실질적인 면에서 한국정치의 커다란 영향력자인미국의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제3세계 지배에있어서 강력한 군부통치보수차례 좌절을 맛봐야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전략이 「저강도전쟁」이다. 한국에서 6, 29선언도 이의 일환으로써 회된 시나리오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이 군부의 개입을 허용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근래에 발생한 일련의 극우적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6·10」 「8·15」 남북학생회담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통일운동과 사회 전반에 출렁이는 민주화의 물결은 군부내의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는 정국을 경색시킬 것이며 이는 올림픽, 재신임, 지방자치제 등 갈길이 험난한 노정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쇼체제하에서 전투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야당을 자신들의 구도속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어려움을 노정시키게 된다. 따라서 분위기조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야 했다. 정국을 극도로 무경화방향으로 끌고감에따라 대중의 시각에 노태우는 상대적으로 중도적 위치에 서있는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며 위기감을 조성, 타협적인 보수야당을 보수연합구도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이었다.

이러한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켜질 수 있으며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의도한바대로 양김씨는 노태우의 품안에 안겨 극우세력에 대한 대한 결단을 요구하였으며 노는 『군이 정치에 간여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답변, 양김씨는 하나같이 회담결과에 만족을 표명했다.

이와같은 노의 답변은 지난해 관훈클럽에서 있었던 대담에서 『도도히 강물이 흐르는데 좌우에 악어떼가 입을 벌리고있다』는 표현을 연상케 한다. 결국 한줌의 군부숙청은 진보세력의 엄청난 탄압에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나타날수있다.

따라서 최근에있었던 오흥근 중앙경제신문사회부장 테러,김용갑총무처장관 발언등을 통한 위기감 조성은 유화국면속에 진보세력의 탄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논리적인 군부의 동향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Ⅲ. 맺음 말

노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좌경세력의 척결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노정권의 본질이며 외형상 드러나는 유화분위기는 진보세력의 탄압을 은폐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올림픽에 앞서 여·야간의 정경유전에도 불구하고 노정권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 노동현장에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김용갑총무처장관 발언과 신우익론의 대두는 본질적인 곳에서 탄압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올림픽이 끝난이후 당분간 유화국면이 계속될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정권은 앞에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뒤로는 계속적으로 발길질을 해댈것이다.

이는 암심수석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말하여 정국의 주된 색깔은 오히려 가혹한 탄압이며 유화제스추어는 이에대한 덧붙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조국통일운동과 민중생존권과의 관계정립과 함께 올림픽이후 곧법위하게 벌어질 민중생존권투쟁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후진적인 사회에서 군은 중간계급의 정치참여를 선도하지만 하층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강화되면 이의 대항 체제를 보호하려는 보수적 노력을 전개

한마디

친구에게

▲친구.

지난 한 학기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네. 지금도 뇌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구만. 그때 자넨 이렇게 말했지.

불순한 시대는 가장 진지하고 순수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투사를 만든다고. 나약하기만 했던 우리들은 가슴으로부터 처절히 끓어 오르는 말을 갖지 못했기에 이렇게 침묵해야만 하고또한 우리는 그 침묵의 벽 속에서 서로를 포기하고…. 그러한 무갑각이 인간에 대한 절망을 가져왔다고, 열려있는 세계로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비겁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현실은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을 불순하고 조악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이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지성의 양심을 따라 민중과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친구.

침묵같이 어두운 창 밖으로 외로이 켜져 있는 한줄기 등불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처절하게 고민했던 말들을, 다시한번 뇌까려 보네.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이상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이상을 민중의 「보편적 염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었지. 나의 마음대로 간직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즉어도 후회하지 않을 결대적 진리라고 믿지않았던가.

간혹 거센바람에 쥐어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패배와 좌절의 쓴 잔을 마셔야 해도 우리의 이상은 결코 급하거는 안될 가치가 아니었던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말일세.

▲「민족」.

그러면 이땅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분단민족은 비록 현실의 삶이었는 실체이지만 우리의 이상에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노예가 되었을때 쇠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듯이, 분단된 우리에겐 해방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실체, 바로 민족의 통일이 있지 않은가.

비록 허리에 철쇄과 쇠사슬이 박혀 있는 아픔까지 외식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가 나버린 현실이지만 어쩌 [illegible]을 도외시 할 수 있겠는가.

눈을 감고 외면하려해도, 수많은 이유를 밤새삼아 도피하려해도 우리의 아픔은 결코 잊혀질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이상은 현실에 기반을 둔것이니 말일세.

<감>

민족과 함께 도약을, 세계와 함께 올림픽을

화이팅 코리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韓民族·흔우리—
우리 모두 하나되어 88올림픽 성공의 주역이 됩시다.

5천년 비바람치는 모진 역사속에서도 꿋꿋이 민족의 저력을
키워온 韓民族·흔우리—
88서울올림픽은 민족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시험무대입니다.
민족과 함께 도약을 세계와 함께 성공적 올림픽을—
우리 모두 하나되어 세계로 도약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창립 50주년 50 1936-1986

민족과 함께, 역사와 함께 커온
여러분의 三星—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1. 다양한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협찬
• 이탈리아 라스카라 오페라단 초청공연
• 오페라드라마 「불의 아해들」 합가리화 합작공연
• 개막 음악제
• 런던 찬탄퀴리리 무용단 초청 등 국제무용제
• 폴랜드 Gardzienica 극단 초청 등 국제연극제
2. 첨단 제품과 기술, 시설 제공 등의 [illegible]후원사업
• 삼성반도체통신 : 전기통신시설 공[illegible]급
• 삼성전자 : VTR 카메라 등 전자제품 공식공급
• 삼성물산 : 캐주얼웨어 공식공급
• 제일제당 :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 공식공급
• 호텔신라 : 올림픽 본부호텔
3. 올림픽 개폐회식 행사용품(기념품)단독제공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북한-그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1>

정 병 준
<현대사 연구가>

Ⅰ. 머리말

북한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게된 이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정확한답을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같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어느 사회보다도 철저히 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이론의 원천이며 조선로동당의 유일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사회·역사를 이해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이자 출구인 셈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주체이다』는 사회역사원리와 자주적입장, 창조적방법의 견지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는 지도적원조적입장 (①교주주의를 반대하고②랑카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 에 대한 저류는 비록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는 아니더라도19 30년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윤진현, 『김일성 주체사상연구』 형설출판사, 17쪽) 이 견해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19 30년대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국내 운동과 국제 혁명운동의 새로운 단계로의 전이와 그에 근거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창시」 되었고, 이후 1950~60년대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보다 심화·확대되고 일반화되면서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완성되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창시를 요구했다고 주장되는 시대적·역사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

먼저 1920~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상황을 살펴보자. 19 2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랑스—레닌주의의 급속한 보급과 그의 일정한 영향하에서 노농운동의 급격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허약하나마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고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는 한편 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야수적 탄압과 운동의 지도핵심을 자임한 공산주의자들의 오류로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반제반봉건의 깃발을 내건 민족해방운동의 핵심대열 형성과 대중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다. 20년대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소부르조아 인텔리 출신으로 민중속에 깊숙이 뿌리박지 못했으며 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국가나 (반) 식민지를 가릴것없이 혁명운동은 전세계적 범위로 고양되었다. 따라서 랑스·레닌의 시대에는 제기될수 없었던 제 문제들이 이 시대 즉 「주체의 시대」에 제기되었고 **매개의 나라들이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힘과 주체의 방법으로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역사적 조건에 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해 문제를해결할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를 깨달은 「전실한 새 시대 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이후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새로운 지도핵심으로 등장하였고 그중심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동만지역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허동찬, 『김일성평전』 북한연구소, 289~297쪽)

이들은 1930년 6월 장춘현 카룬 (作倫) 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현단계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노선으로 ①반일무장투쟁노선 ②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 ③자주적 당의 창건 방침을 제출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해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주체사상 창시의 『역사적 대사변』이 일어났다는 카륜회의였지만 실제로 카륜회의에서 제기된 것이 「사상」의 차원이었다기 보다는 민족주체 「노선」의 차원 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카륜회의에서 처음 보여지는 주체사상의 원리는 이후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인민혁명정부 노선(정권수립, 토지 개혁, 대중사업의 경험)체력, 반일민족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의 창립,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사업등을 경험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심화되었다고한다.

(김민우, 「19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 『동국』, 1987)

Ⅲ.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 1945~1950년

해방직후 북한의 당과 정권기관 수립과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북한은 민족주체노선에 근거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과 그 시기에 형성된 대중관, 사업작풍, 사업방식은 이 시기 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한다.

(大內憲昭, 「朝鮮人民政權의 憲法」 『月刊아시아·아프리카 硏究』 1983. 7)

특히 1946년 「민주개혁」으로 대표되는 인민민주주의 개혁은 1930년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계승, 발전시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 정강에 기초한 것이었고, 항일무장투쟁을통해 조직, 사상적으로 검열되고 단련된 유격부대의 핵심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 정권기관의 수립, 인민군의 창설등에 있어서 조직적 골간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임은, 『북한 김일성왕조비사』 한국양서, 136~137쪽)

이 시기에 주체의 사상·이론·방법은 해방이후 북한의당 건설과 정권기관에서 주류를 형성하게된 유격부대의 핵심들에의해 혁명운동 경험의 사상·이론적 전통으로 계승되는 수준이었고 국가적 차원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실천경험의 축적과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었다.

(大內憲昭, 「朝鮮人民政權의 憲法」 『月刊아시아·아프리카 硏究』 1983. 7)

특히 1946년 「민주개혁」으로 대표되는 인민민주주의 개혁은 1930년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계승, 발전시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 정강에 기초한 것이었고, 항일무장투쟁을통해 조직, 사상적으로 검열되고 단련된 유격부대의 핵심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 정권기관의 수립, 인민군의 창설등에 있어서 조직적 골간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임은, 『북한 김일성왕조비사』 한국양서, 136~137쪽)

이 시기에 주체의 사상·이론·방법은 해방이후 북한의당 건설과 정권기관에서 주류를 형성하게된 유격부대의 핵심들에의해 혁명운동 경험의 사상·이론적 전통으로 계승되는 수준이었고 국가적 차원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실천경험의 축적과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었다.

<표1> 조선로동당 지도이념의 변화

당 대 회	지 도 이 념	당 면 목 적
1차대회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 1946. 8)	· 공식적 언급없음	·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건설
2차대회 (북조선 로동당 2차대회 : 1948. 3)	· 공식적 언급없음	·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건설
3차대회 (1956. 4)	· 마르크스, 레닌주의 ·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 제도수립 ·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4차대회 (1961. 9)	· 마르크스, 레닌주의 (일반적 원리의 창조적 적용, 수정주의, 교조주의반대) · 항일무장의 혁명전통	· 사회주의제도 강화 발전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5차대회 (1970. 11)	· 주체사상 (랑스—레닌주의의 창조적적용)	· 사회주의 완전승리 보장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6차대회 (1980. 10)	· 주체사상	· 사회주의 완전승리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17쪽>

회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수도, 백두, 『김일성사상비판』) 이같은 세원리를 체계화시킨 주체사상은 모든 사상이 그렇듯이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의 경험속에서 일반화되면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사상이 과연 어떠한 시대적, 역사적배경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화, 발전, 일반화되고 체계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Ⅱ. 주체사상의 창시문제

주체사상이 창시된 시점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체」라는 용어가 1955년 북한의 「당선전선동일군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그후 주체사상이 스탈린격하운동, 중소논쟁의 와중에서1960~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남한학자들이 주장하는 19 55년제창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부인한기초위에 서있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이 1920년대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형세시랑스주의자」 「사대주의자」와 「교조주의자」 및 「종파주의자」들의 운동을 비판, 반대, 극복한 토대위에서19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에서 살아있는 랑스—레닌주의로 창시되었다고 주장 하고있다.

(하수도, 『김일성사상 비판』 290쪽) 즉, 「주체」라는 형식적 용어가 비록 1955년 「당선전선동일군대회」에서 제기되었지만 주체사상의 골간인 자주적 입장 (①남에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②자기머리로 사고하고③자기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④자기문제는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태도) 과 창의 새로운 혁신대열의 형성③대중에 근거한 대중노선의 채택 ④자력해방과 「민족주체노선」의 대두가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항일민족해방운동 시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연세』 (27호)

한편 이 시기 국제혁명운동의 노선은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1920년대말 30년대 초의 세계공황은 제국주의국가 일반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그 약탈적 본성을 노골화하여 자국 노동대중에 대한 착취강화와 파쇼화, 식민지침략전쟁의 모순전가와 식민지침략전쟁의 도발 등을 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국가나 (반) 식민지를 가릴것없이 혁명운동은 전세계적 범위로 고양되었다. 따라서 랑스·레닌의 시대에는 제기될수 없었던 제 문제들이 이 시대 즉 「주체의 시대」에 제기되었고 **매개의 나라들이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힘과 주체의 방법으로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역사적 조건에 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해 문제를해결할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를 깨달은 「전실한 새 시대 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이후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새로운 지도핵심으로 등장하였고 그중심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동만지역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허동찬, 『김일성평전』 북한연구소, 289~297쪽)

이들은 1930년 6월 장춘현 카룬 (作倫) 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현단계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노선으로 ①반일무장투쟁노선 ②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 ③자주적 당의 창건 방침을 제출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통해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주체사상 창시의 『역사적 대사변』이 일어났다는 카륜회의였지만 실제로 카륜회의에서 제기된 것이 「사상」의 차원이었다기 보다는 민족주체 「노선」의 차원 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카륜회의에서 처음 보여지는 주체사상의 원리는 이후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인민혁명정부 노선(정권수립, 토지 랑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지도노선이 내용적으로는 관철되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랑스—레닌주의조차 당의 공식지도이념으로 공식화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랑스—레닌주의가 공식지도이념으로 채택된것은 1956년 3차당대회에서였다!) 참고로 당대회의 규약을 통해 나타난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참조>

2) 1950, 60년대

전쟁 직후 북한은 전후 복구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문제해결에 있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도 잿더미 위에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자주성, 자발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요구되었을 것이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노선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은 내부로부터의 난관 (소련·연안파의반발)과 중·소의 「대국주의적 내정간섭」 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난관을 극복해야만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교조화된 랑스·레닌주의가 아닌 북한이 당면한 고유 현실과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랑스—레닌주의」를 수용하게 된다.

이를 지침으로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사상, 경제, 정치, 국방의 개별분야에서 수립되기 시작한 주체, 자립, 자주, 자위의 정책노선은 시기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자주적 입장에 근거한 「주체」는 랑스—레닌주의에 대한 김일성의 주체적 해석의 첫표명이었다.

실제로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이 비판의 주요한표적은 소련·중공을 필봉겸으로한 박창옥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최창익등의 연안파였고 이는 56년의 소위 「8월 종파사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전쟁후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은 53년 당중앙위 6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노선」이었다. 반면에 당시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경공업 중심의 경제노선,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분업에 기초한 통합적 경제노선이 제출되어북한을 이분업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다. 소련의 이노선은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상충되었고 북한내부의 소련파와 연안파는 소련의 내정간섭의 대리자로 중공업우선정책을 반대하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성확보와 정치에서 자주성확보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위 「8월종파사건」으로 통감한 북한에서는 1956년12월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론」 인 「경제에서의 자립」이 등장하였고 1957년 12월 전원회의에서는 「정치 (내정) 에서의 자주」 노선이 제출되었다.

이시기를전후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제도가수립 (1958) 되었고 당내에서는 연안파, 소련파 등의 분파가 숙청되어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당적 사상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의 「주체」노선은 북한의 모든 정책에서 보편성을 띠게 되었고 1962년 당4기 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 경제건설,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이 채택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이 제출되었다.

또한 중·소논쟁이 본격화되자 북한은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독자적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1966년 로동신문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사설이후 동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우리의 결상」을 강조하면서 「정치 (외교) 에서의 자주」 노선이 공식화되었다.

일단 1966년 「정치 (외교)에서의 자주」 노선의 제기를 기점으로 북한사회에는 주체노선이 사회전반에 내용적으로 전면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바꿔말하자면 한 사상의 생성·발전·완성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북한식 적용인 주체노선 역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실천상의 무수한 실패·반복·일반화의 험정을 거치면서 일단 1960년대 중반에 북한의 사상·정치·경제·문화·군사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사상으로서 실천성을 달보하게 되면서 객관화될 수 있는 내부적 근거를 하게된 것이다.

한편 1972년 4월의 김일성탄생60주년기념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의 양대지주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 제출되었고 주체사상, 혁명이론, 지도방법의 전일적 체계로서 「김일성주의」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제부터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격상되어 침해지기도 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사상이 랑스—레닌주의와는 다른 독창적인 사상체계로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8월조총련의 「조선신보」는 김일성주의가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니고 인류사상 최초로 발견된 주체사상을 근본적인 토대로 하는 불멸의 사상이론」이고 또한 「이 탁월한 혁명사상이 인간과 자국혁명을 중심에 두는 이론과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있기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양삼, 앞의 논문 55쪽 재인용) 이결과 1980년 조선로동당 6차대회의 개정된 당규약은 5차대회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문화되었다. 이로써 70년대 초에 「우리시대의 랑스—레닌주의」로 불리웠던 주체사상은 80년대에 들어와 랑스—레닌주의와의 관련성을 단절하고 「불멸」의 독창적 사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2년후인 1982년 김일성 탄생 70주년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이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의 이론화, 체계화 작업은 일차적으로 완결된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아닌 신(神)적인 존재로 상징된 김일성을 뒷받침하는 정치학습의 현장 (사진제공 : 월간북한 8월호)

「김일성혁명사상」은 1968년 당4기16차전원회의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된 바 있다. (앞의책, 「북한사회론」74쪽)

1970년대에 들어서면 주체사상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어 마침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다. 즉 1970년의 조선로동당 5차대회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선포하였고 5차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화, 승리의 대회」로 주장되었다.

이어 1973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이념으로 전면화되었다. 이에따라 이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 뿐만아니라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었던 주체사상은 1960년대말 70년대 초부터 그간의 경험이 심화·확대·일반화된데 근거하여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해 그동안 각 정책분야에서 관철되고 있던 「주체」 노선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1967년12월 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에서 주체사상은 「10대강령」 제시에 의해 논리적 체계화가 본격화되는 한편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1961년제 4차당대회에서김일성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이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55년 「북한선전선동원대회」에서 처음 제기

맑스-레닌주의 기초로 항일투쟁에서 출발을 주장

70년대 이후 김일성의 독자적 사상체계임을 강조

주체노선은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실천성을 담보하며 객관화될 수 있는 내부적근거 마련

Ⅳ. 주체사상의 종합화·체계화과정

해방이후 50~60년대를 거치면서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방면에 걸쳐 조선로동당의 정책노선으로 정착 일반화되었던 주체사상은 1960년대말 70년대 초부터 그간의 경험이 심화·확대·일반화된데 근거하여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해 그동안 각 정책분야에서 관철되고 있던 「주체」 노선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1967년12월 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에서 주체사상은 「10대강령」 제시에 의해 논리적 체계화가 본격화되는 한편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1961년제 4차당대회에서김일성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이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글싣는 차례

1. 주체사상의 형성과 종합화과정
2. 주체사상의 철학원리 고찰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고찰
4. 주체사상의 지도원칙 고찰
5. 세습체제와 지도자관
6. 과도기이론과 계속혁명론
7.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상·하>

알 림

조국이 분단된지 44년.

통일에 대한 온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관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논의수준이 지나치게 편협한 관변논리이거나 뚜렷한 관점이 부재한 사실나열 뿐이었음을 반성해야만 한다.

이에 본보 학술부는 통일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근래의 관심사로 등장한 주체사상을 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합리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객관적인 연구풍토의 진작을 위해 게재한다. 북한정치체제의 굴절되고 왜곡된 본질을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하나, 지면관계상 본 기획은 주체사상에 한정되므로 다른 실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면을 통해 연구되길 바란다.

<편집자>

「참교육」, 민주적 임용제가 법제화돼야 한다

홍 진 숙
〈사대·한교2〉

80년이래 가중되어온 교원적체는 사대생에게는 생존권적 위협과 더불어 참교육에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다.

사범대학교 졸업생은 국립대의 경우 그해년도 졸업생이 그 전년도 졸업생 중의 적체이월자에게 임용이 밀리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립사대생은 그에 따라 순위고사의 관문이 더욱 좁아지고 사립공채 또한 적체된 국립사대생의 용시로 더욱 경쟁률은 치열해져서 사립고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교사가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7년 임용을은 국립사대의 경우 총 7천2백8십명 중 42%, 사립사대는 1만9백8십명 중 26.6%였고 그나마 사립사대는 임용여정을 입론 실제 임용현황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적체인원은 국립대졸업자중 1만4천명, 사립은 3~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범대학의 존재근거를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볼 때 이렇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문교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며 크게 무계획적 교원임용과 교육재정의 궁핍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계획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교원이 모자라면 양성소를 대충 세워서 내보내고 남으면 사범대의 정원을 축소하는 식의 탠 필식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선 양성과정이 지나치게 다원화되어있다는 점이다. 국·사립사대, 교원대, 양성소 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학교육을 받는 전체학생수의 4분의 1이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둘째, 국사립대의 임용상 차별이 심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에는 국립대생을 우선 임용, 교원 부족시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사립대생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적체현상의 심화로 부족분이 없게 되자 순위고사를 폐지시켰다. 그러나 교육법 9조에는 「국사립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세째, 중등교원 양성에 있어서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과정이 정규사범대학 비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87년의 경우는 신규임용교원중 약 50%를 차지했던 것이다. 네째,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원임용이 비공개화, 비공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공공연한 금품수수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신규채용시 5백~1천만원을 거두고 있다. 그외에도 「성형불량자 제외라는 이름으로 시위관련자가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법 77조3호)여교사를 차별임용 (87년 여성공채모집 인원은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는 너무도 많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인 교육재정의 부족은 한국의 정부 재정중 공교육비의 비중이 3.5% 정도로, 심가포르나 브라질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의 심화, 예속적 경제구조로부터 비롯된다. 즉 교육을 통한 신식민지 지배질서의 유지, 재생산 외도에도 불구하고, 대소 전진기지로서의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 일여가치의 해외유출등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의 반영형태인 것이다.

5공화국은 출범이후 소위 「7. 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연간 6천억~1조원의 교육예산을 교육세를 설치함으로써 메꾸려 하였다. 교육세법은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 (1조)으로 하며 82~86년까지의 시한부입법, 그리고 문교부의 그간의 정책의 문제점이 국가고시제안을 제기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특히 국립대생을 중심으로 그 파고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내기에 이르렀다.

사립사대에서도 그간의 조기, 좌절을 딛고 교직진출투쟁을 위해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설문지 홍보작업에 들어가고 있으며 10월중순 교직진출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참사랑 교육연구회의 활동도 기대해볼만하다.

비민주적, 무원칙적 임용제도를 공식화,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법정정원수의 법령화 (현재 그의 6.70%), 둘째 비사범계의 교직진출 제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 임용방식은 「외무발령제」가 필것이다. 국사립 차별없이 졸업과 동시에 발령대기자가 되는데 이의 실현에는 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전제되므로 3년여간의 과도기안을 연구하고 있다.

당면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 전개된 그간의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단결의 필요성을 싸움속에서 각성했다 점, 교원적체의 본질적 원인을 알고 이 해결을 단지 「밥줄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탱을 이루어가는 싸움임을 분명히했다.

이렇듯 사대생의 민주적 권리확보를 위한 생존권 투쟁으로서의 교직진출투쟁은 절박한 문제임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는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예비교사들의 생존권 쟁취의 차원을 넘어서 교원임용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교육전반의 개선을 도모하는 민주교육 쟁취의 백락에 서인식, 실천되어야할것이다.

▲대생들의 교직진출투쟁은 단지 「밥줄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하는 바탱을 이루어가는 싸움이다.

사대생들의 교직진출투쟁은 민주화를 통한 민주 교육 쟁취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인도의 암소숭배 이유와 북한 알레르기

이 재 호
〈학술부장〉

누더기 차림의 어느 농부가 굴주려 죽어가고있는 바로 옆에서 살이 찐 커다란 암소가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인도의 정경 (?)은 어처구니가 없다.

백보를 양보해서, 마리아는 기독교인들의 생 (生)의 모체이듯이 힌두교를에게도 암소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부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판에 5천4백만마리가넘는 암소들은 살이 룸룸하게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는없다.

또다시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자문화중심주의를 버리고 문화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인도가 지금까지 발전이 더딘 주된 이유가 카스트제도와 암소숭배에 있다고 세계의 경제석학들이 누차 지적하고, 설령 그것이 아무리 부리내린 전통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민중의 생존을 위해 점차 개선시켜야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은 인도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빈해리스가 쓴 『문화의 수수께끼』를 보면 뜻밖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저자가 직접 인도에서 수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이 책을 보면 인도의 암소숭배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되어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인도에는 상대적으로 숫소가 부족하다. 쟁기질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숫소가 병들거나 죽게되어 즉시 건강한 숫소로 대체하지 못하면 인도의 농가는 소작이나 날품팔이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고한다. 따라서 숫소생산을 위해 다수의 암소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또한 암소가 생산하는 소똥은 2천7백만톤의 등유, 3천5백만톤의 석탄, 6천8백만그루의 나무연료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인도의 가옥에서는 소똥으로 마루를 까는데 공법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한다. 또한 인도의 기후조건 (몬수운기후가 정기적이지 않음) 은 한발과 기아를 자주 가져오는데 농부들이 순간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암소를 잡아먹으면 장기적으로 생존에 커른 위협이 닥쳐온다는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그러한 암소숭배와사회적 신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소의 효율은 13%에 불과하지만 인도소의 효율이 그보다 높은 17%에 이르는것은 『인도인들은 극히 실용적인 국민이며 어느것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국민이다』라는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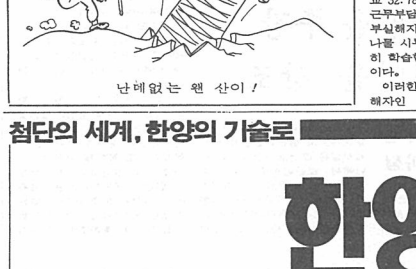
이렇게 장황하게 인도의 암소 숭배 이유를 인용한 까닭은 최근 대학가의 「주체사상」 논의에 대한 경찰의 민감한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암소숭배를 인도사회의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바로볼때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때, 또 그속에 뿌리깊은 「주체사상」을 연구할때 자문화중심주의에입각한 자본주의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사회주의이데올로기라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때만이 재관적인 (감건너 볼구경하는 식의 제3자적 입장이 아닌, 또하나의 나라가 아닌 합쳐져야할 나머지 반쪽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인식을 얻을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은 머리에 뿔나고 목뒤의 혹이 얼굴보다 크다는 반북한 의식에 대한 학문적 도전이다."

요컨 강자가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반북한의식과 북한사회(주체사상)에 대한 실한 편견과 선입관, 왜곡에 대한 학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은 『분계선 철조망에 따가운 가시돋고, 남과 북 를 결치는 푸르름은 영원히』라는 어느 노랫말 처럼 머리에 뿔나고 목엮의 혹이 얼굴보다 크다는 반북한 이데올로기의 따가운 가시돋고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의 시작인 것이다.



카자의 눈

산업재해 왕국

지난 4일(일) 오후5시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는 문익환목사등 1백5십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故) 문송면 산업재해 추모제및 산업재해 추방대회」가 열렸다.

1, 2부로 나누어진 이대회의 1부에서는 고(故) 문송면군의 49제를 맞이하여 15살난 어린 노동자가 수은과 신나에 중독된채 회사로부터 아무런 산업재해보상처리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던 것에 대한 추모가 진행되었다.

추모사에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황인봉씨는 『송면이를 죽인 것은 수은과 신나가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모순입니다. 이제 머이상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가들만 먹여 살릴 수 없읍니다. 독점자본가와 매판권력자들에 대한 우리의입무는 오직 하나, 단결투쟁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2부 산업재해 추방대회에서는 「산업재해 실태보고」, 「원진레이온사례보고」, 「산업재해 추방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증으로 22명이 집단병에 걸린 「원진레이온 사례보고」 순서에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원진레이온 사장과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읽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원진레이온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댓가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직업병을 얻으셨읍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어른들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읍니다.

제 어릴적 꿈은 나라를위해 충성하는 장군이 되는 것이었는데 현노동부장관과 원진레이온 사장님이 모두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아버지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했는지를 안 지금의 제 꿈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정모군 (롱아중·2) 이 글을 읽는동안 장내는 온통 침통과 속연한 분위기로 가득찼다. 곳곳에서 「살인방조 직무유기,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빼빠르게 일했는데 직업병이 웬말이냐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숱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갔고 문송면군은 그중 세상에 드러난 한사람일뿐이다. 하루 평균 5명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주들은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등은 방치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땅의 현실이 희박해가면 갈수록 천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단결투쟁만이 살길이라는 명제로 일어설 것임을 기대해본다.

<이 진 기자>

첨단의 세계, 한양의 기술로

한양화학은 국내 최고의 종합석유화학회사 입니다

석유화학공업의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

국내 석유화학공업을 선도해온 한양화학과 프리스틱문화를 창조해온 한국프라스틱을 합병하여 21세기의 첨단 석유화학분야를 주도해 나갈 중추기업을 아십니까?

현재, 매출액이 우리나라 GNP의 1%이며, 92년도에는 1조3천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국내최고의 종합석유화학회사 — 바로 한양화학입니다.

우수한 두뇌와 진취적 기상을 가진 젊은이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첨단산업의 세계. 한양화학이 도전과 성취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종합 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한 한양화학은 고급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신규사업의 일환인 복합 신소재 분야와 신공법의 연구개발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한 능률적인 조직관리는 풀른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세대와 한경된 기반의 한양화학이 만나는 것입니다.

국내최고의 석유화학기업이라는 자긍심과 젊은 세대의 탁월한 능력이 만나 제시하는 한양화학의 청사진은 바로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한 한양화학과 첨단 석유화학업계를 주도하는 전문 기업인으로 성장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한양화학의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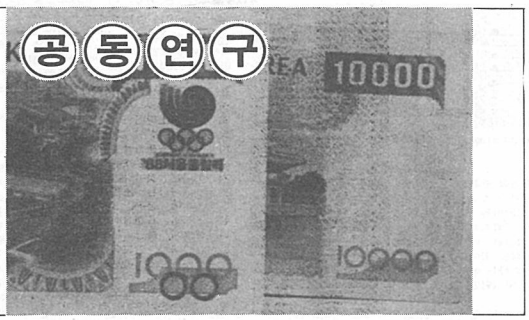
(단위 : MT/년)

제품	생산능력	계	기 존	신규 및 증설	비 고
LDPE	383,000		223,000	80,000	89년 9월 가동
LLDPE			80,000		
EVA	31,000	31,000	—		
PVC	390,000	250,000	140,000		90년 6월 가동
가 소 제	26,000	26,000	—		
VCM	360,000	210,000	150,000		91년 6월 가동
EDC	270,000	270,000	—		
염 소	222,000	222,000	—		
가성소다	347,000	227,000	120,000		92년 1월 가동
정제가성소다	57,000	57,000	—		
염 산	25,000	25,000	—		
PMMA	12,000	—	12,000		89년 5월 가동(합작)
NCC	350,000	—	350,000		92년초 가동
MDI	40,000	—	40,000		91년 12월 가동(합작)
WOOD STOCK	2,400	—	2,400		88년 12월 가동(합작)
자동차부품 및 프라스틱 가공품	110,000	110,000	—		
총 계	2,625,400	1,731,000	894,400		

韓國火華그룹
韓洋化學株式會社

TEL.270-1114 FAX.270-3000/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1번지(현업빌딩) / 공장 : 여천, 울산1, 울산2, 진해, 부강, 군산, / 해외지사 : LA, NewYork, Manila, NewDelhi

공동연구



한 삼 현 〈서양·영어2〉
장 기 중 〈상경·경제2〉

서울올림픽과 한국경제의 위기

—올림픽 개최의 본질과 이후 전망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소위「인류평화의 대제전」이니「국민화합의 제전」이라고 선전되는 88 서울올림픽은 우리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에 한국을 소개하는 좋은 계기로써, 그리고 이후에는 성장과 도약의 디딤돌로써 올림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매스컴에서는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마치 한국경제의 사활이, 민족의 번영이 이번 올림픽에 달려있다는 듯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서울올림픽이 한국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생활의—엄밀히 말하면 민중의 생존—향상과 민족번영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번 외판은 단지 올림픽에 얼마의 돈을 투자했고 얼마를 이익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수치상의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림픽 개최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까지 88서울올림픽에대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은편은 아니었다。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측면에서 취급하기보다는 현상적인 면이나 부차적 측면만을 다룸으로써 서울올림픽 개최에대한 잘못된 견해를 낳게했으며 그로 인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서울올림픽에대한 잘못된 대응을 취하게 했던것이다。

이글에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깊숙히 편입된 한국경제의 자본의 운동논리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도국인 미국의 경제, 정치및 군사정책 속에서 서울올림픽 개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운동세력의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을 제시하며, 올림픽 이후의 전망을 살피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있을 것이다。

2. 몸 말

1. 70년대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한국정부가 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79년 10월 8일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올림픽에 대한 준비는 77년 부터였다는 것은 그당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발표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십 수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경제적기초가 마련되어 있으며…(중략)…서울시는 지난77년부터 80년대 올림픽유치라는 장장 막강한 경제력에 기반을둔 IMF·GATT체제에 의해 가능하였다。

이 IMF—GATT은 미국의 달러실포 통로였으며, 거액의 살포된 달러는 주로 「공산주의와 싸움 외사가 있는 나라」에 대한 각종 원조와 군사지출의 형태로 행해졌다。 이러한 전후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IMF와 GATT체제를 개편하려는 발전도상국의 도전과 서유럽·일본의 대두와 EEC의 출현에 따라 미국은 달러위기를 맞게되고 항상적인 적자의 길로 접어든다。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머블러를가와 임금의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한에 미국은 1960년말에 전반적인 재정, 금융상의 긴축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면서 경기가 다소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자국내의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1970년에는 미국은행의 대외지불 준비금이 감소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자차액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유럽시장으로 유출되었다。 이러한 미국내의 경제사정과 정책적인 달러의 계속적인 대외살포로달러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등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한편 EC및 일본의 경제력은 급신장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1971년 8월 닉슨대통령이 극적으로 발동한 「경제 긴급조치」였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달러화 (貨) 금태환의 일시정지 ②대외 경제협력자금등의 삭감 ③10%의 수입과징금 부과등으로 되어있다。이것은 한마디로 그때까지 유지되어온 국제경제질서의 IMF·GATT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전후 세계무역의 기본원리였던 자유주의의 쇠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른바 「신보호주의」 시대의 막을 여는 개막사이기도 했다。

닉슨의 경제조치는 1945년 이후 한국경제속에서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했다。 특히 대외 경제협력자금의 삭감은 크나큰 타격이었다。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는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하면서 인플레를 진정시켰던 것이다。

ㄴ. 미국경제 위기의 한국경제로의 전가

미국의 이러한 경제위기는 식민지 한국경제에 전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가의 방식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로 이것은 사실상 제국주의의 절대적 명령이었고 한국의 독점재벌들은 이를 적극 호응, 수용한다。

80년 7월 1일부터 33개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발표하고 8월에는 국내의 외국은행에 금융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심결 회수에 대한 제안을 철폐하며, 식품·유통·서비스산업에 대한 직·합작투자를 허용하였다。 즉 이것은 미국 경제의 모순을 식민지 한국으로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졌고, 한국의 종속경제는 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또한 독점재벌이 살아남는 확실한 방법으로 시장개방 요구를 받아들인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점재벌은 덜레머에 빠진다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자유화되어 어느 정도 이윤이 늘어나고 생산이 원활해질지 모르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과 자국의 금융긴축정책은 생산품 판매시장, 즉 수출삼지역을 줄어들게한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벗어나 수출지역의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것이다。 이 필요성은 7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었으나 80년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그에 따른 종속성의 심화로, 특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경제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여기서 「올림픽 유치」의 문제는 다시 떠오르게 된다。 다시 떠오른 「올림픽 유치」의 문제는 단지 미국이나 한국의 독점재벌 중의 한편의 이해에만 결부된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독점재벌 들모두의 이해가 결부된 것이다。 즉 미국은 올림픽의 서울유치로 식민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기술과 경비를 지원하여 직접투자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올림픽의 국제화에 힘입어 시장개방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자국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독점재벌은 수입자유화에따른 저곡가, 저임금의 유지로 생산을 지속할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등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이 삼대적으로 적은 상품수출지역—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로의 모색기회와 진출기회로 올림픽을 이용하며, 이것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0년 입시적으로 중단되었던가 81년 다시 유치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것은 현상에 불과하며, 올림픽의 서울유치는 77년이후 계속적으로 자본운동의 논리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으로해서 81년 올림픽 유치를 결정, 유치성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부차적이나마 올림픽 개최국으로써 권위와 정당성을 살리고자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81년에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의 서울개최 결정의 우연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88올림픽이 서울유치로 결정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다랗게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IOC위원들의 성향이나 국제정치상 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서울올림픽이 흑자가 될 것인가? 당시 일본과 같은 특수경기가 있는가, 아니면 미국과같은 경제력이 있는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은 미국의 합법적 경제수탈의 계기로써, 국내 독점자본의 활로로 위치지워지는 것이었다。 이 투집단의 의도대로 올림픽이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올림픽 이후 미국과 국내 독점자본가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안목의 의도가 빗나갈 경우 올림픽은 투집단의 위치를 그 뿌리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후자의 경향을 띤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다。

계속가중되는 원화절상 압력, 수입개방요구, 거대한 양의 방위비 분담 요구등 자국내의 경제위기를 합법적으로 한국에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88종합무역법안이나 최근 열린 G7(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이 한국을 비롯한 NICS(신흥공업국)의 성토대회였다는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다고 할 수있다。 그 반면에 대사회주의권이나 제3세계권을 겨냥한 국내 독점자본의 의도는 관철되고 있지못하다。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데다가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내 상품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인 상황이어서 더더욱 새로운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가 절실해졌다。

계속되는 원화절상 압력으로 수출은 둔화 입번도를 달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로 원자재는 가격상승 일로에 있기때문이다。 대사회주의권 무역이 그동안 파대선전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권교체기를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화공세가 바로 현재의 신데탕트의 정체이다。 하지만 이 평화무드는 제국주의적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의 대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설사 평화무드가 오래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한상적일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경제체제의 상이함과 정치권력 성격의 커다란 차이성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비중이 큰 중공과의 교역은 직접 교역이 아니라 간접교역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역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직접 교역시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무역이 이뤄진다해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미진한 양의 교역만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내에서 북한의 영향력행사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이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독점자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리적 토대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의 악법과 안기부, 보안사 등의 탄압기구가 그대로 온존하는 한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것이다。

86년 아시안게임을 전후한 경제적 위기가 개헌정국과 맞물리면서 87년 6월 투쟁을 촉발시켰듯이, 결국 이번 올림픽 역시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기를 안겨주는 계기가될 것이다。

원화절상 압력, 수입개방 압력, 물가의 급등, 수출둔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원인으로 올림픽이 후한 국경제는 80년대들어 가장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3. 맺는말

88서울 올림픽은 이미 77년부터 시작되었다。그러나 그 환상 만큼이나 실제적 효과는 그다지 없다。 오히려 올림픽의 유치는 갖수록 열악해지는 민중생존의 문제를 은폐, 왜곡, 탄압하는데 이용되고있는 방편에 불과하다。현재 나돌고 있는 올림픽이후의 루테타렐, 전면 탄압설 등의 일관된 루머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있는지도 모르는 국내 독점자본가와 군부파 쇼징권은 계속 심화, 확대되는 경제위기를 정치적 탄압으로써 무마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이후의 한국경제는 80년대들어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될 것이고, 그만큼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어질 것이며, 이를 탄압하는 파쇼정권의 폭력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아니 올림픽이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벌써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아직까지 대중들은 올림픽의 허구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생활 속에서 막연한 인식만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민중들은 본능적으로 이후의 탄압과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이 「탄압과 위기」의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변혁의 아주 중요한 계기를 상실하게 되고 말것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진은 성화봉송중인 모습(제공—KBS 저널 8월호)

흑자올림픽은 대중의 눈가림위한 위장된 환상

올림픽이후 위기는 물가 급등에서부터 시작돼

올림픽유치 77년부터 시작…자본운동 논리의 필연적 결과

일본 경제 부흥의 발판은 동경올림픽 자체보다 「월남특수(特需)」에서 더 크게 연유했다。

적 목표를 세우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서울종합운동장 건립, 지하철 건설, 도로망 확충, 각종 도시시설 정비등 30%의 추진실적을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는 음모적으로 진행된 77년부터 79년까지의 88년 올림픽 서울유치계획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왜 77년에 올림픽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가 문제이다。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공고화를위한 기만책이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현상적인 파악이다。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자본운동의 세계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쉽게 나타난다。

①71년 닉슨의 「경제긴급조치」와72년 유신체제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에 맞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한다。 이것은 미국의 조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72년 「10월 유신」 이었다。

②74년 1차 석유파동과 올림픽 서울유치 계획

미국의 IMF—GATT체제의 붕괴는 세계 분업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식민지 한국경제는 그 분업구조 속에서 발중공업을 추진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집약형 중공업분야를 떠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72~73년사이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일정정도의 인정화를 가져온다。이 상대적 경제호황은 1차 산품의 수요를 급증시키고,이것은 더욱 1차 산품의 인플레를 가져왔다。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4년 1차 석유파동을 맞게된다。이 석유파동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황은 만성화되어 항상적인 위기 본주의권이 아닌 제3세계나 사회주의권의 교역도 고려를 하는 것이었다。 제3세계나 사회주의 진영의 시장개척을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 개최 이상 좋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76년을 계기로 77년 부터 하락하는 수출증가율은 수출위주 경제정책에 커다란 위험신호였으며 이는곧 77년부터 잠정적이나마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77년부터 준비된 올림픽 서울유치 계획은 79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나, 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더욱 큰 경제위기를 맞게된 한국경제는 민중들의 변혁투쟁을 고양시켰으며 이는 결국 유신체제의 종말로 귀결지어졌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올림픽서울유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③ 80년대 미국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79년 유신체제가 종결됨으로써 88년올림픽 서울유치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처럼 보였고, 또한 80년 1월19일 최규하정부는 88올림픽 유치계획 철회를 공식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민중들의 투쟁은 가속화되었고며 드디어는 계엄령 하에서 광주민중항쟁까지 이르게된다。 광주민중을 학살한 전두환이 11대대통령으로취임한 후 올림픽유치건의가 다시 들어오자 전두환은 이를 적극지지하며 올림픽서울유치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결국 81년 2월 서울시는 88년 올림픽유치방침을 확정했으며 그해 9월~10월 제84차 IOC총회에서 서울시는 개최지로 결정된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결정, 유치성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부차적이나마 올림픽 개최국으로써 권위와 정당성을 살리고자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81년에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의 서울개최 결정의 우연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88올림픽이 서울유치로 결정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다랗게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IOC위원들의 성향이나 국제정치상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닐 것이다。

2. 88서울올림픽 유치 이후의 한국경제

81년 부터 프로야구, 프로씨름등이른바 올림픽 붐을 일으키기 위한 소비적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에 자본이 집중투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 기타 각종시설에도 자본이 집중되어 소비성 자본이 거대한 양으로 유통하게 된다。 이 결과로 소비적 유효수요가 증가하게되고, 소비재의 물가가 불안정화되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그러나 대다수 대중들은 연일선전해대는 「흑자올림픽」의 환상 속에 파묻혀 현재의 생활환경을 아주 기쁘게 (?)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흑자올림픽」의 대표적인 예로 동경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이 등장한다。 서울올림픽도 「잘만하면」 흑자올림픽을 뽑아낼 수 있다。 일본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하느냐! 그렇다 흑자올림픽의 무경우에서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보다는 동경올림픽이 더욱 크게 선전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LA올림픽은 그자본의 규모에 있어서 비교도 안되기 때문에 단지 「자원봉사」 등의 예만 들뿐이다。

어쨌든 우리도 흑자올림픽을치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 (?) 이 과연 우리에게 먹힐까?

동경올림픽은 단순히 올림픽만으로 일본경제 부흥의 발판이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월남특수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만일 월남특수가 없었다면 동경올림픽은 환상의 흑자올림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것이다。 LA올림픽의 경우에는 미국경제의 막강한 힘으로 철저한 상업올림픽을 치룬 덕택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서울올림픽이 흑자가 될 것인가? 당시 일본과 같은 특수경기가 있는가, 아니면 미국과같은 경제력이 있는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은 미국의 합법적 경제수탈의 계기로써, 국내 독점자본의 활로로 위치지워지는 것이었다。 이 투집단의 의도대로 올림픽이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올림픽 이후 미국과 국내 독점자본가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안목의 의도가 빗나갈 경우 올림픽은 투집단의 위치를 그 뿌리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후자의 경향을 띤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다。

계속가중되는 원화절상 압력, 수입개방요구, 거대한 양의 방위비 분담 요구등 자국내의 경제위기를 합법적으로 한국에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88종합무역법안이나 최근 열린 G7(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이 한국을 비롯한 NICS(신흥공업국)의 성토대회였다는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다고 할 수있다。 그 반면에 대사회주의권이나 제3세계권을 겨냥한 국내 독점자본의 의도는 관철되고 있지못하다。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데다가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내

「공동연구」 원고를 모읍니다

「공동연구」는 모집공고가 실린지 한 학기만에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외대인들의 각분야에 걸친 진지하고 성실하며 다양한 글을 계속 모집합니다。

▲대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자격 : 반드시 2인이상 1개연구팀
▲주제 : 자유선택
▲문의제출처 : 본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전화 : 965—7048 (직통)

외 대 학 보

전환기 언론의 파행적 권언(權言)유착

이 상 은
〈현대 언론연구소 간사〉

Ⅰ. 글을시작하며

흔히 언론과 사법부는 국가를 건강하게 견인하는 두개의 축이자 마지막 「안전핀」에 비유된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과 사법부의 역사가 「안전핀」이라는 호칭에 결코 걸맞지 않음은 부끄럽게도 사실이다.

지난 8월26일 「기자협회보」 특기사에는 「최시중 정치부장 권력 유착 협적 파문, 동아기자들, 진상해명요구」라는 제하에 지난13일 최부장의 김용갑 총무처장관의 「올림픽이후 개헌」 운운 발언에 대한 지지표명과, 18일 전두환 전 (全) 대통령과의 골프회동등과 관련한 소문에대한 보도가 실렸다.

이밖에도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에 초대되어 「촌지」를 받았다는 것이 한겨레신문 (8월27일자) 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제6공화국 탄생이후 유월항 「자유경쟁시대의 언론」 논리등으로 우리 언론의 역사적 지평이 일견 달라진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언론스스로의 당위적 좌표정립을 보장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재정권이 언론을 제멋대로 유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던 언론통치시대는 분명 말끔히 최결돼야 한다.

그러나 곳곳에서 언론노조가 생기고 공정방송을 부르짖는 작금에도 일련에서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적 비리가 청산되지 못한채 우리 언론내부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어, 정의로 국민에 봉사하는 성숙한 언론시대의 개막을 근원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Ⅱ.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

국민들이 언론에대해 공정보도에 심각한 비난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권언 (權言) 유착」이란 한마디로 표현된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언론이 권력구조의 하나로 편입돼버렸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언유착」은 한국언론의 기회주의적이고 나약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특히 언론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 정계로 발돋움하거나 앞으로 정계로 나아가려는 일부 언론인들의 권력지향적 형태가 그 주요원인이라 하겠다. 현실참여라는 명분으로 정계에 뛰어든 언론인들은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약점과 속성을 악용하여 언론을 탄압하거나 교묘하게 조작하는데 앞장서왔다.

흔히 「권언유착」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장악하려는 권력과 권력의 시혜를 받아 사세를 확장시키고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언론사주간의 이해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권력과 언론사가 연결되는 통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영주 스스로일 수도 있고, 언론사의 핵심간부일수도 있고, 또 전혀 노출되지 않는 통로도 있을수 있다.

소위 「권력의 유혹」이라는 미명아래, 또는 「현실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부독재 정권의 혀가 되기를 자부했던 권력지향적인 언론인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변신」을 일삼은 것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권력과 돈은 항상 함께 붙어다니는 것 일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이권에 개입했거나 권력자가 쥐어주는 엄청난 돈에 넘어가는 흔적도 남아있다.

5·16쿠데타는 한국언론과 권력이 유착되는 시발로 평가된다. 총칼로 권력을 장악한 정치군인들은 무신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한손으로 탄압을 일삼으면서 또 다른 한손으론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언론계를 병들게 만들었다. 쿠데타직후 최고회의 대변인이었던 이후락씨는 언론인들을 권좌에 끌어들이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황금」이라는 병균으로 언론계를 황폐화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행은 제5공화국까지 이어져 대통령의 하계기자회견이나 정계기자회견때는 「촌지」가 뿌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인 80년5월16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각각 기백만원의 「정권홍보비」가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청와대 출입을 마칠때는 소정의 「전별금」이 휘황루에 담아 보내진다고 한다.

5공화국 출범직후 언론계에서 정계로 자리를 바꾼 「해바라기성 지식인」들은 손으로 꼽을수 없을만큼 많다. 7백여명의 기자들이 타의에 의해 거리로 내몰기고 수 많은 언론인들이 옥중에서 신음하는 중에도 권력을 쫓아 정계로 뛰어든 이들 언론인들은 군부독재 권력의 홍보여역을 자청했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집권여당의 측수로서, 혹은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을 현혹시키기 일쑤였다.

Ⅲ. 전환기 언론의 파행적 모습

독재권력의 하부구조의 언론매체 특히 신문과 방송은 지배의 도구 또는 기존질서의 유지수단으로 간주된다. 언론매체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어렵다. 게다가 권력엘리트가 중요뉴스원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당한다. 또 언론매체는 그 자체가 대기업집단인 관계로 그 수입을 다른 대기업의 광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수밖에없다. 권력집단과 대기업은 밀접한 공생관계가 있다. 결국 언론매체는 지배세력인 권력집단과 대기업의 권력유지수단이며 돈벌이 수단이다.

언론이 민의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권력집단이나 소유주나 광고주의 압력에 의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압력을 예상하여 언론인 스스로 그럴수도 있고, 언론사의 인원과 장비와 예산의 제한과 언론인의 편견과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현상유지에 기여한다.

그래서 언론매체에 비판적인 이론가들은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막고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보호하는 현상유지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편재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현상타파는 비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 언론매체가 강력한 현상유지수단인만큼 그것은 또 강력한 현상타파의 수단이 필수도있다.

현상유지에 주로 기여하는 언론매체도 현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언론이 갖고있는 존재방식과 언론계를 파행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은 「언론인에 의한 언론통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상업적 언론이기주의와 언론종속

한국언론은 자본주의적 언론발전메카니즘이 깊숙이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취리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로 시작되는 독립신문의 그 공익정신은 어느새 『우리는 취리하려는 것이 언론의 목적이므로…』 라는 상업언론의 자기관철과 대기업언론으로 변질했다.

여기서 제기되는 심각한 질문은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자유」는 대다수 언론수용자인 국민의 언론자유가 아니라 기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곧 언론자본가의 돈벌이 자유및 기업의 자유로 타락했다는 점이다

법의 공적명령에 언론이 충실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부여되는 특권과 특혜의 근거는 기업의 돈벌권리 실현에 있지 않다. 민주언론의 재목적은 언론의 이기적 관심현실에 있지않고 국민들의 정치의견과 관심을 치자에게 상향중재 하고 공론을 형성케하는데 있다.

고로 민주언론은 이타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언론의 상업적 이기주의가 절대화함으로서 언론의 존재목적자체가 언론스스로의 자기확장과 자기강화로 전환하여 민주적 언론모습에서 이탈해 갔으며 점점 그 이기주의는 비민주적 독점 언론을 강화하는 보수주의를 낳고있다.

2)언론권력주의와 신문카르텔

한국언론은 권력비판과 견제의 기능에서 보다 국민위에 군림하여 민중을 제도하고 가르치며 훈시하는 「언론권력」으로 부상해 있다.

국민들로서의 정치적 권력과 정치적·도덕적권력을 하나 더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공해」와 「언론특권」이란 말로 집약해 표현되기도한다.

지배자의 의지를 하향선전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혼장으로 가능하는 독선적 권위주의로 언론이 변질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지배세력이 경제적 지배계층으로 등장한 언론재벌과의 야합과 동반자논리에 의해 지배의지를 하향적으로 언론이 선전하는 대신 각종 경제적·사회적 이권을 언론이 반대급부를 권력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권언동맹 (權言同盟) 체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탓이다.

이러한 비호아래 독재권력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그 댓가로 새로운 신문의 출현을 막는 등 특혜속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한국의 정치권력과 신문은 전형적인 권·언복합체를 형성, 발전시켜온 것이다. 한국의 이권·언복합체는 지난 4반세기 이상을 한결같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신문기업의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수많은 중대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자유언론을 주창하는 기자들을 해고하고 남아있는 기자들을 각종 유인책으로 매수하고 기자노조를탄압하여왔던것이다.

Ⅳ. 글을 맺으며

자유는 문자그대로 자신(自)으로부터 유래(由來)되는 속성을 지닌다. 언론자유여시 비슷한 논리위에서 성립되고 성취된다고 볼수있다.

제6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선언적으로도 철저히 배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치적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과 권력유착은 비직업의식에서 기인

권력·금권선호경향척결이 문제해결의 핵심

▲출판의 권·언복합체는 4반세기동안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독재권력을 강화하며 사유물화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경향보 기자들이 편집국장추천제를 주장하며 사원들이 임명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언론계의 기회주의적이고 나약한 속성은 언론을출세의 발판으로삼는 일부 언론인들의 권력지향적 행태이다.

권언유착적 과편주의가 아직도 엄존, 상호이해에 따라 사실을 권력의 기호대로은폐, 또는 왜곡하거나 과장보도, 독자의 알권리를 교묘히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가 일부 기자들과 언론간부들 사이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광고등 금권주의와 관련된 일부 언론기업들의 횡포와 스캔들 또한 자유를고 책임있는 언론질서의 정착에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계 내부에 흐르는 기회주의적 언론의 유착관계를 살펴보고, 민주화와 함께 각 언론사에서 이루려하고 있는 진환기 언론의 탐면모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뿌리 깊게 존재하고있는 권언유착 관계를 살펴보고, 민주화와 함께 각 언론사에서 이루려하고 있는 진환기 언론의 탐면모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언론의 기회주의적이고 나약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특히 언론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 정계로 발돋움하거나 앞으로 정계로 나아가려는 일부 언론인들의 권력지향적 형태가 그 주요원인이라 하겠다. 현실참여라는 명분으로 정계에 뛰어든 언론인들은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약점과 속성을 악용하여 언론을 탄압하거나 교묘하게 조작하는데 앞장서왔다.

흔히 「권언유착」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장악하려는 권력과 권력의 시혜를 받아 사세를 확장시키고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언론사주간의 이해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권력과 언론사가 연결되는 통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영주 스스로일 수도 있고, 언론사의 핵심간부일수도 있고, 또 전혀 노출되지 않는 통로도 있을수 있다.

소위 「권력의 유혹」이라는 미명아래, 또는 「현실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부독재 정권의 혀가 되기를 자부했던 권력지향적인 언론인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변신」을 일삼은 것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권력과 돈은 항상 함께 붙어다니는 것 일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이권에 개입했거나 권력자가 쥐어주는 엄청난 돈에 넘어가는 흔적도 남아있다.

5·16쿠데타는 한국언론과 권력이 유착되는 시발로 평가된다. 총칼로 권력을 장악한 정치군인들은 무신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한손으로 탄압을 일삼으면서 또 다른 한손으론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언론계를 병들게 만들었다. 쿠데타직후 최고회의 대변인이었던 이후락씨는 언론인들을 권좌에 끌어들이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황금」이라는 병균으로 언론계를 황폐화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행은 제5공화국까지 이어져 대통령의 하계기자회견이나 정계기자회견때는 「촌지」가 뿌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인 80년5월16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각각 기백만원의 「정권홍보비」가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청와대 출입을 마칠때는 소정의 「전별금」이 휘황루에 담아 보내진다고 한다.

5공화국 출범직후 언론계에서 정계로 자리를 바꾼 「해바라기성 지식인」들은 손으로 꼽을수 없을만큼 많다. 7백여명의 기자들이 타의에 의해 거리로 내몰기고 수 많은 언론인들이 옥중에서 신음하는 중에도 권력을 쫓아 정계로 뛰어든 이들 언론인들은 군부독재 권력의 홍보여역을 자청했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집권여당의 측수로서, 혹은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을 현혹시키기 일쑤였다.

독자칼럼

88올림픽 서울유치 비공식 이념

최 혜 선
〈사범·불교2〉

소위 인류의 대축제라고하는 제24회올림픽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1년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쎄울 코레아」라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발표로부터 시작된 올림픽 준비가 8년이 지난 이제 바야흐로 올림픽개막 10여일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TV에서는 연일 올림픽 준비상황과 선수들의 소개, 그리고 올림픽을 재미있게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매스게임에 동원된 학생들은 수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잠실 메인스타디움에서 열심히(?)뛰어다닌다.

그러나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에겐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인으로서의 흥분 (?) 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고있다. 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여 홍보하고 준비해온 올림픽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86아시안게임때보다도 그다지 큰 흥미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렇듯「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히 생각해볼 필요도없이 지난 8년동안 한반도 남쪽땅, 이곳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두가지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광주학살을 발판으로 들어선 제5공화국 군부독재집단과 그의 배후조종자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그들의 정권을 안정화 하고자 하는 계기로써 올림픽을 치루려는 흐름과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재야, 학생,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등 민주세력들의 부단한 투쟁의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세력들의 반민족, 반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의지가 첨예화되어 민족사모순들을 최결해 나가기 위한 통일이 커다란 과제로 놓여지게 되면서 그 일환으로 올림픽을 「공동개최하여 민족대단결의 교두보를 열어야 한다는 담위가 있었고 이것은 「6·10남·북한실회담」과 「8·15남북국토종단대행진」을 열고자 하는 지난한 몸짓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더-데이(D-Day)10여일 전인 현재 집권자들은 남북공동개최하여 민족대단결의 교두보를 열어야 한다는 담위가 있었고 이것은 「6·10남·북한실회담」과 「8·15남북국토종단대행진」을 열고자 하는 지난한 몸짓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더-데이(D-Day)10여일 전인 현재 집권자들은 남북공동개최를 주장하는 자들을 좌경·용공이라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매도하면서 평화구여설정, 정치휴전 그리고 그들이 낙인찍은 좌경·용공분자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채 그날이 오기만을 숨가쁘게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군부독재집단과 미제의 올림픽 비공식이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이다.

10여일이 남았든, 3일이 남았든 올림픽은 남북한이 공동개최해야만 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되는 통일의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올림픽개최 의지가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단호히 단독 올림픽을 반대해야만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공동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한 88올림픽은 「당신들의 축제」일수밖에 없으며 이를 분쇄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임무가 아니겠는가.

"공동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한 올림픽은 「당신들의 축제」일수 밖에 없으며 이를 분쇄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임무가 아니겠는가"

세계제일의 첨단자동차에 도전한다 ③

뇌파로 움직이는 첨단자동차 개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꿈의 자동차 —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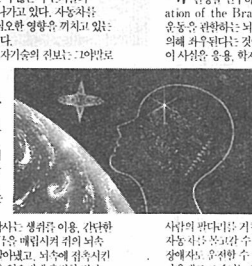
첨단 자동차의 개발에 함께 동참할 용기있는 젊은 엘리트가 많아야 한다.

본 장치으로는 옛날 하나에 대바퀴 달린 자전거를 가진 사람 탔는 장차에 불과한 자동차는 수많은 주변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대한 전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를 휩쓸고 있는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자기술의 혁명일 것이다.

컴퓨터기술의 변혁과 함께 수많은 전자기술의 진보는 10년후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최상의 것에 도달할 정도로 놀랍시다.

고도의 전자장치들이 자동차의 성능, 운전성을 좌우하고 보다 원대한 가능을 갖게 한다. 첨단 전자기술로 미래의 자동차는 훨씬 능률적이고, 안전하고, 값싸면서도 안락해질 것이 틀림없다. 어제면 머리속에서 생각만 하면 그 생각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고 멈출 수도 있는 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지도 모르다.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윤스박사는 생쥐를 이용, 간단한 실험을 했다. 생쥐의 뇌속에 미소 전극을 매립시켜 쥐의 뇌속에는 쾌락중추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아냈고, 뇌속에 접촉시킨 미소 전극에 생쥐 스스로 전기자극을 일으키게 훈련한 결과, 생쥐는 1시간에 5천회나 되는 쾌락자극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다른 모든 쾌락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것이다.



대뇌를 전기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인 ESB(Electronic Stimulation of the Brain)라는 새로운 학문이 밝힌 사실은 인체의 운동을 관할하는 뇌신경의 신호전달은 모두가 미소한 전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응용, 학자들은 전자의수인 인공팔을 개발해 내었다. 대뇌의 명령이 근육에 전위자극을 생기게 하고, 그 전위자극 근육을 움직여 사람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면, 전극에 나타나 미소 전위의 변화를 분석해 뇌의 명령을 알아차림으로써 장치된 모터의 돌아가림을 돌려서 전체 손에 가하여 운동을 시키는 것이 전자의수의 원리였다.

이원리를 원리로 이용, 자동차를 운전시키는 것이 뇌파자동차인 것이다.

컴퓨터에 의한 뇌파분석으로 포착된 신호의 내용을 자동운전장치에 연결하면 사람의 판단력을 거치지 않고 뇌파의 명령만으로 원활하게 자동차를 몰고갈 수 있는 것이다.

장래에는 운전할 수 있는 꿈의 자동차, 머리에서 생각만 하면 마음대로 조종되는 인간지능 극한의 자동차인 뇌파 자동차의 개발은 바로 그때 젊은 엘리트들의 참여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HD 現代自動車

렌즈정보 ALPS

에이에스렌즈

왜? 꼭 "AS렌즈"여야 하는가?

에이에스렌즈는 코팅렌즈의 우수성을 모두 지녔을 뿐만 아니라 렌즈안에 AS마크를 넣어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투과율 극대화 : 아주 선명하게 보이며 눈이 쉬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빛의 반사방지 : 안경이 번쩍거리지 않고 사진에도 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용효과 : 높은 도수의 일반 렌즈는 반사가 더욱 심할뿐만 아니라 눈이 튀어나온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점을 모두 해결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 신제품 • AS H-7렌즈(Super hard coat) : 표면경도를 종전보다 약 3배 강화시켜 흠이 거의 나지 않는 프라스틱렌즈
• AS화니렌즈(Super hard multi coat) : H-7렌즈에다 멀티코팅한 렌즈

눈의 소중함을 아는 AS 한독일프스광학

행정체제 간소화 돼야한다

업무의 신속·효율성위해 전산화등의 체제 개편작업 절실

개교이래 큰 변동없이 30여년간 유지돼온 행정부처의 신속화, 효율성 미비등의 문제때두로 간소화작업과 체제개편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본교의 행정부처는 서울·용인캠퍼스 총8개와 그아래 11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나 각 부처마다 중복된 업무를 보는곳이 많으며 업무의 수동화등으로 인한 부작용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기획조정처 이진섭 기획조정과장은 이에대해 『먼저 행정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기할수 있도록하고 업무가 증복되는 부분이 없도록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까지의 결재서류에서 볼수 있듯이 사소한 행정까지 처장, 총장의 결재를 거쳐야 했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실질업무를 담당하는 각행정부서에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학교측의 입장은 올2학기 서울캠퍼스 학생처의 개편으로 나타났다。학생과, 장학과로 구성되어 있던 학생처는 지난8월25일자로 학생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학생계, 장학계, 취업보도계로 체제를 개편한 바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생과에서 맡아보던 아르바이트, 취업업무는 취업보도계에서, 학생계는 학생행사와 총학, 써클등 학생기구를, 장학계에서는 장학업무, 연수, 유학, 병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러한 형태의 전문화및 부서간결화가가능한 부처로는 교무처를 들수 있다。교무처는 교무과와 학적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하나로 통합하면서 각단과대 교학과의 업무강화를 통해 교무·수업등의 업무를 단과대의 차원에서 완결지을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교무처에서는 각단과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만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체제의 간소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업무의 전산화로 이는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인원 전산요원만을 필요로해 경영의 합리화도 기할수 있다。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부서는 학적과와 대학원입부, 경리과입부등에 불과하나 학생과의 아르바이트, 취업업무 대학원 교무, 경리과의 예산관리, 도서관관리,총무과의 인사관리, 관리과의 비품및 자재관리등 학교측의 조치가 뒤따른다면 대부분의 업무전산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외에 대학원의 경우 5개대학원의 교무과를 모두 전산화한다면 따로 존재하는 5개교무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 사무의 복잡함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교무처는 89년도초까지 전산화할 계획에 있어 내년부터는 서울캠퍼스에서 일괄처리하던 성적표발송등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처리돼 신속해질 뿐만 아니라 직원도 감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체제의 간소화라고 하여 무원칙적으로 직원을 감원해서는 안될 것이다。즉, 1차적으로전산화가 가능한 부서를 전산화시키고 직원의 감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행정체제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업무는 관료성, 업무분장 불확실, 전산화 미비와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진행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생산성본부」에 행정체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등에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이런 학교측의 노력이 행정체제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영합리화를 가져올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문정란기자>

서양어문대 왕산 환경조성사업 전개

총3차로 계획, 장승및 벤치설치해 공원화 도모

서양어문대 학생회는 지난7월26일(화)부터 용인캠퍼스내의 휴식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용인캠퍼스 환경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두 3차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양어문대 학생회 기획부는 어문학관 진입로에 장승을 세우고 왕산계곡을 「해트메스」로 명명한 공원을 만들어 벤치를 설치한 공원 1차계획완공식(장승제)을 지난8월22일에 마쳤으며, 8월30일(화)에는 공원 2차계획완공식(수로제)으로 장승옆에 플해방아 설치를 완료하였다。

현재 기획부는 3차사업으로 왕산계곡에 원무막과 통나무집(휴게실용)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문제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있으며 이의 해결을위해 학교측과 협의중에있다。

이에대해 서양어문대 학생회장 김양수군(영어·3)은 『용인캠퍼스의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공원조성계획을 잡았다』고 밝히고 『왕산학우들의 애교심과 주인의식이 좀더 고양되기를 바라며 학교당국에 용인캠퍼스의 발전을위해 환경조성에 성의를 다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자식되는 용인 구내전화

교내·서울·시외전지역 24시간 통화가능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와 공전식 교환시설로 인한 용인캠퍼스의 「통신고」가 10월18일부터 서울캠퍼스와의 전용회선 증설과 전 전자식 교환기등의 시설개선으로 많은 부분 해결된다。

현재까지 용인캠퍼스는 공전식 교환기로 인해 외부통화는 물론, 구내통화까지 항상 교환원을 통해야 하며 교환업무시간인 오후 5시30분 이후에는 통화가 불가능해 전화 사용시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학생을 비롯한 교수·교직원들의 전화시설개선 요구가 계속있어오자 학교측은 지난한기 용인캠퍼스 행정체제개상을 통해 총무처산하 관리과를 신설, 구내전화시설개선을 전담케 했다。관리과는 이에따라 여름방학기간동안 공사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측이 이를 승인, 9월1일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된것이다。

전자식으로 교환되는 구내전화시설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게된다。

첫째, 교환원 없이 24시간 구내통화가 가능해지며 물론, 서울캠퍼스와의 24시간 통화와 용인시내·서울·시외전지역등의부통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지역과 시외통화는 통화료 지급문제로 전화기에 A·B·C등으로 급수를 매겨 각 조직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배분, 통화범위의 기준을 정하게된다。

세째로는 서울캠퍼스와의 전용회선이 3회선에서 5회선으로 증설된다。아울러 음질개선의 공사도 실시된다。

이는 양캠퍼스 통화시 통화외 러시아워 시간에 3회선만으로 모든 통화를 소화시켜 줄수 없는 문제점과 거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잡음문제를 해결키위한 조치이다。

네째, 교환실 이전에 따른 고지대 낙뢰문제 해결로, 전자식교환시설시에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지대 어문학관 교환시설이 부적합, 그보다 낮은 교양학관 교수실(104호)로 관리과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양학관도 평지대가 아님을 고려, 그에 준하는 접지시설등 낙뢰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보완시설을 갖출계획이다。

용인캠퍼스의 「통화고」는 현재 진행중인 전자식공사의 완공과 함께 해결될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공을앞두고있는 지금, 문제로 지적할수 있는것이 전화기의 급수별 배분이다。현재 학교측은 A급의 경우는 24시간 구내통화는 물론 모든 외부통화를 가능케하고 B급은 24시간 구내통화부터 서울전지역, C급은 구내통화와 서울캠퍼스와의 24시간 통화만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전화기 급수기준과 배분기준은 아직 미정된 상태인데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통화절제와 학교측의 믿고 맡기는 신뢰 속에서 배분이 이루어질때 전자식화 시설개선은 용인캠퍼스의 「통화고」를 진정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안미숙기자>

88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 논문제출및 시험일정 확정

8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졸업시험및 졸업논문 제출일정이 확정되었다。

졸업시험이 실시되는 서양어대, 서양어문대(불어과 제외) 동양어대, 동양어문대, 사범대(불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제외) 문리대등의 언어실습및 회화시험은 서울·용인캠퍼스 모두 9월29일(목)실시되며, 일반교과목시험은 9월30일(금)실시된다。

응시원서 제출기간은 9월1일(목)부터 7일(수)까지이며, 졸업시험의 시간표는 9월21일(수)해당대학 게시판에 게시된다。

또한 서양어대·서양어문대의 불어과, 법대, 상경대, 사범대의 불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문리대 철학과, 사회과학대등은 졸업논문으로 대체되는데 제출마감은 9월28일(수)까지이다。

「누리예」 정기 사진전 개최

용인캠퍼스 사진반 「누리예」주최 「제7회 정기사진전」이 지난 8월31일(수)부터 9월1일(금)까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영화상영 안내 〉

◇서울캠퍼스
—시청각 비데오룸(2202호)

▲9월6일(화) : 오전10시 「대활하」 오후2시 「살바도르(Salvador)」 오후5시 「호스티지(Hostages)」

▲9월7일(수) : 오전10시 「대활하」 오후2시 「살바도르(Salvador)」

▲9월8일 (목) : 오전10시 「대활하」 오후2시 「살바도르(Salvador)」 오후5시 「호스티지 (Hostages)」

▲9월9일 (금) : 오전10시 「대활하」 오후2시 「살바도르(Salvador)」 오후5시 「호스티지 (Hostages)」

▲9월12일 (월) : 오전10시 「대활하」 오후2시 「더플라이(The Fly)」 오후5시 「미션(The Mission)」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영사실(1412호)

▲9월7일 (수) : 오후1시 30분「제3의 사나이(Third Man)」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

▲9월12일 (월) : 오후1시 30분「올댓제즈(All That Jazz)」

▲9월13일 (화) : 오후1시 30분 「라스트라다(La Strada)」

영교과 창립20주년 기념행사

연극·영교인의밤·회지발간등 계획

영어교육과는 버나드 쇼우원작 「TOO TRUE TO BE GOOD」을 9월9일 (금) 오후3시와6시, 10월 3시에 대학원 소강당에서 원어로 공연한다。

영어교육과 창립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치뤄지는 제2회 영어교육과 원어연극인 이번 극은 김경택 (3학년) 기획, 조국현 (3학년)연출로 전공의 부조리함이 가져다 준 기존 가치관의 붕괴를 고발하고 있다。

영어교육과는 선배들을 초대하는 영어교육인의 밤(10일 오후6시, 대학원 소강당) 과 영문학회지 발간등의 기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서양어문대 영어과 1회 워크샵공연

서양어문대 영어과는 지난 9월2일(금)오후4시30분 교양학관201호에서 원어연극 제1회 워크샵공연을 가졌다。

영어연극을 통한 학생들의 영문학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연극은「THE BANK」와「DON'T CALL US」가공연되었고 총 연출은 최경희양 조연출은 국중연, 이원진군이 맡았다。

직원노조, 진정서 제출

경조금지급등 협약안 이행요구

직원노동조합은 학교측이 단체협약을 지킬것을 요구하며 9월5일 (월) 서울북부지역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3월21일 체결한 1백3개 단체협약안중 경조금, 야간·휴일수당, 당직실시설보안등이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지켜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노조부위원장 유기한씨 (용인시청각실) 는 『지난3월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경조금은 2개월이내에 노조와 협의를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또 조합장의 인사이동시 조합측과 미리 협의하기로 했으나 학교측은 노조와 아무런 협의없이 조합장 강영은씨 (전 학생처근무) 를 서양어대 교학과로 인사발령하는등 많은 부분을 지키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노동조합 임시총회」가 지난9월3일 (토) 오후3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총3백27명의 노조원중 1백70명이 참가한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측이 제시한 정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부결됨에 따라 노조측은 학교측에 단일호봉제실시와 정년연장을 주장할 방침이다。학교측이 제시한 안은 과장60세, 서기57세등 직급별로 55~60세로 차등실시하는 안이었다。

또, 올해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법률이개정되어 이의 가입도 요구할 방침이다。

요상한 부화(孵化)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정계에서 소위 「부분적 휴전」을 선포, 모든 민주화작업이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올림픽 분위기저해 방지를 위해 여·야당의 대표나으리들, 5공비리·언론탄압등 각종 비리사건조사를 올림픽끼뤄로 미뤘는가하면, 노동3권 외치던 지하철 노조도 휴전분위기에 휩쓸렸는지 파업을 올림픽 뒤로 연기해, 흐믈많은 제6공화국 어부지리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올림픽주머니에 꽤다만 알집어넣고 안심하지 말고 요상한 부화(?)있기전에 유비무환 태세 갖추어야할 사(事)。

○…출판·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시기에 바른 소리하는 문인(文人)은 가뒤놓고 국제 펜 대회가 무사히(?) 끝나。

구속 문인 석방을 위한 항의 결의서를 놓고 석방탄원서를 선택한 한국 펜대회 관계자들의 만세환호와 문인협회 이사장의 「축사말말」은 바른길이면 피해가라는 이시대의 처세술(?)을 소신껏 발휘해。

난국에 양심문인 필 용기없을바에야 일찌감치 원고보따리 싸들고 청산(靑山)에 들어가 양심수련인이 되심이 어떨런지…。

○…「북」자만 나와도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증상을 보이면 정부가 「북한바로알기」운동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 민초들을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고。

북한을 바로알기위해 대학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과, 책소개를 위해 쓴 서평을 「친북이데올로기」운동하며 관계자들을 연행해가 가뒤놓고는 로동신문, 북한자료공개 하겠다고 일구이언을 하고있어, 7·7선언에 이은 정부의 시혜적인(?) 「상황대책」에 민초들 감탄사를 지발할수밖에。

더 이상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선 로동신문 인용한다고 싹쓸이(?)하지말고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터。

○…학문탐구의 장으로 정숙을 내실화 해야하는 이문벌 도서관이 때아닌 공사판을 만나 애를 먹고 있다고。

학교측은 지난 방학기간부터 이문벌 난방시설공사를 착수, 공사장을 도서관 바로옆에 설치해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때리고 갈고, 박는 작업소리로도서관의 흡산들, 「1+1=윙윙」 일 정도라고 하소연 하는 바。

공사장과 도서관은 멀면 멀수록 좋은것을 인지하고 도서관을 옮길것인지 난방시설공사장을 옮길것인지 현명한 (?) 학교관계 나으리들 서둘러 판단하시압。

○…요즘들어 이문벌과 왕산골에 면학분위기가 아닌 「유흥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부 몰지각한 흡산들이 있어。

진리의 산실 미네르바 동산에서 고스톱판을 벌이는 신(新)선비족 흡산(?)이 있는가 하면 동문회장소 텃세싸움이 각목싸움으로까지 일고 심지어 왕산흡산중엔 밤늦게까지 만취된 고성방가 준들이있어 모현민초들, 안면방해죄로 크로이클자에게 고소를 해오고 있는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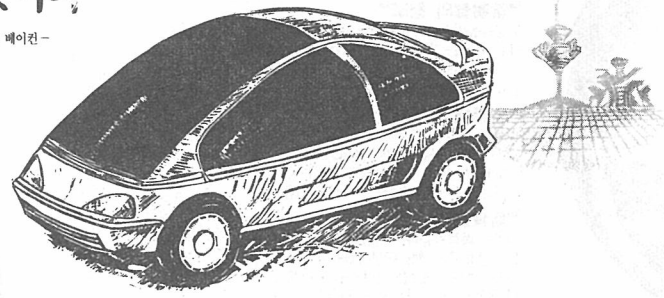
유흥협각 일삼는 흡산들, 개·돼지와 사람이 다른점은 때와 장소를 구별해 배설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유흥 분위기

세계제일의 첨단자동차에 도전한다

"어느날엔가 말이나 그밖의 동물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달리는 차가 생기게 될것이다"

—1250년 R. 베이컨—



500년 전의 예언

1770년— 「N.J 퀴뇨」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브레이크도 없이 겨우 5km의 시속으로 달리는 증기자동차를 만들어 「R. 베이컨」의 꿈을 실현시키기까지는 장장 500년이나 걸렸습니다.

1885년—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가 가솔린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까지는 그로부터 또다시 100년, 무려 1세기가 지나서야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이 세상을 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이나 자동차문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1대의 자동차, 그것도 고종황제의 어차로 선보인 「포드T형」은 이름하여 "달리는 괴물"일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읍니다.

2000년— 한 가정에 한 대, 마이카 시대를 누리게 될 우리나라— 지금은 상상속의 미래자동차라고만 여겨지는 뇌파로 움직이는 첨단자동차까지 개발, 세계제일의 자동차왕국으로 떠오를 날도 결코 멀지 않습니다.

HD 現代自動車

새로운 공연양식 집체극

문화시론

최 정 배

〈 사범·불교3 〉

Ⅰ. 머릿말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신문과 방송에서는 전인류의 화합의 대 제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열린다고 야단이다。올림픽 전야제에서는 여의도의 빌딩들 사이에 레이저 광선을 하늘에 비추며 공중묘기를 한다고들 하며, 개막식 때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환상적인 (?) 쇼를 연출한다고 한다。이밖에도 여러 축하 공연에서 온갖 매체와 장르를 뒤섞는 (?) 총체적 쇼들이 연출되어, 가뜩이나 올림픽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흔미한 민중들의 의식을 보다 아득한 꿈의 나라로 인도할 것 같다。

이러한 음식잔치와는 달리, 우리 민중문화계는 건강한 민중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예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집체극이라는 공연양식이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민중의 당 중앙당 창당공연, 민중문화의 날 1회·3회공연, 연대 노천극장에서의 8·15 해방제 기념공연등。

여기서는 갖가지 장르와 매체를 유기적으로 결합, 민중들에게 보다 역동적인 투쟁의 정서와 희망을 주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몇가지 개념정리 및 평가, 그리고 이후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고자한다。

Ⅱ. 집체극 등장의 사회적 배경

서구에는 집체극과 유사한 공연양식인 「총체극」이라는 것이 있다。총체극은 1, 2차 대전이후, 제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에 대한 반성과 자본주의체제내에서 파생된 문화적 위기감, 그리고 현대 서구예술이 지닌 파편화, 개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생성된 것으로, 예술 장르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총체적 감성 회복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있다。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총체극 운동은 극히 피상적인 예술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영상·춤·풍물등 각장르가 종합된 집체극은 감동을 통한 논리적 인식변화를 가져와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분업구조의 속성이 문화적 생산물에까지영향을끼쳐 각 예술장르마다 독자성 폐쇄성으로 확장된결과, 자본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함께 극복의 논리가 「총체」라는 개념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즉, 각 예술장르간의 해체와 통합이 「즉자적인 감성적인식」에만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총체극의 본래 의도가 희석화 됨으로해서 현재의 조류는 신기한 구경거리와 보다 말초적이고 총체적인「꺼리」들을 제공 개개인의 의식을 더욱 파편화 시키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고도화된 의식조작의 한 방법으로 총체극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집체극은 (사실, 본래의미의 집체예술은 조금 다른 개념이나, 위와같은 저열한 총체극과 구별하기 위하여 문화활동가들은 집체극이란 단어를 사용한다。)서구와는 다른 물적토대와 사회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양식으로 제기되었고 연행되어지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보자。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과 발전의 양상은 예술 작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예술작품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이란, 객관적 현실의 변화가요구하는 창작주체의 변화된 가치체계가 기존의 가치체계와 투쟁하는 가운데, 마침내 변화된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한다。그러므로써 예술작품은 기존의 예술형식과 투쟁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투쟁 결과로써 새로운 예술형식을 낳게된다。이러한 예술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모순과 발전의 결과」로써 한국사회에서 집체극 (여기에서 말하는 집체극은 극 구조를 가지면서 음악, 시낭송, 영상, 춤, 풍물등의 여러 장르가 종합된 형식을 의미한다。) 은 등장하게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자。문화운동에 있어(특히, 연행예술운동) 선진적이었던 마당극운동은 민속극 부흥운동을 통해 성립,발전하였다。

그러나,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운동발전에 있어 마당극운동은 더 이상 변화되는 대중의 인식체계와 감성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탈춤, 혹은 마당극의 전통적 안정성과 공동체적 신명은 80년 광주이후 현실의 전투적 상황을 담아내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이와같은 변화가 여타 장르와 매체에서도 진행되었다。쉽게 눈을 돌려보면, 80년대 중반 주류를 이루었던 촌극형식은 형식에 있어서는 대규모적이고 전국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혁의지의 당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예술양식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시기 이후, 우리는 수십, 수백만의 대중앞에서 투기혁해지는 우리 운동의 절적 저열함들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때문에 우리의 집체극은 서구의 총체극 양식과는 달리 사회변혁을 전망하는 실천적인 철학이 내용으로 관철되어 관객에게 역동적인 투쟁의 정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조아의 총체극이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를 자본의 논리로 덮으며 더욱 예술적 파탄으로 나아가는데 반해, 「집체극」은 그 동안 축적되어온 진보적인 예술가의 역량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대중운동에 따라 민중예술의 한 장르로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며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이 시대 진보적 예술가의 임무인 것이다。

Ⅲ. 제기된 문제점과 전망

그렇다면, 집체극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집체극의 구성원리인 각각의 매체와 장르의 유기적인 결합을 얼마나 잘해내느냐에 달려있다。따라서, 집체극을 올리는 데는 한 두가지 장르가 아닌 전매체·장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이제껏 집체극이라고 연행된 공연들을 보면 이러한 전매체 장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부족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이러한 이해는 각각의 매체·장르를 보다 깊이, 종부히 연구하고 실험하는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막연함과 추상성이다。보다 많은 관객을 상정하게되면서 극의 규모가 커지고 각 매체의 사용범위도 넓어졌다 그러나 구체적 감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물론 전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분위기와 효과만 그럴듯 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서구의 총체극과 동일하게 관객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감동을 보다 담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변화의 차원까지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agitation (선동) 이 demagogie(선동)과 구별되는 것은, 순간적 흥분과 효과로서가 아닌 논리적 인식을 기반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체극은 감성적 인식을 통해 논리적 인식변화를 가져와야하며, 문예활동가들은 이점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작품소재의 측면에서, 주로 서사적 내용을 택한다는 점도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서사적 형태만이 대규모 극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속에서 구체성의 결여를 감수해야만 한다면, 하나의 사건,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 하려는 노력 또한 수행돼야만 한다。

이상, 집체극의 개념과 기존 공연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해보았다。

집체극은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예술양식이다。경험도 적고 이론적 기반도 약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양식이다。따라서 문예활동가, 진보적예술가들은 각자 자신의 매체와 장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속에서 타 매체의 이해를 넓혀나가며,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혁의 전망을 제시하는 예술창작물들을 생산해 내야할것이다。보다 많은 대중들을 현실변혁의 대열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말의 쓰임새 (146) 아롱든

<아모튼 감군은 저보다 몸이 배나 강대하고 목청이 또한 그러한 김군을 끌끌내 입기운으로 자기의 자리를 빨르지 못하게 하였다。이해원의 「서글픈 이야기」 중에서>

아롱든은 아무러하든지의 준말로 어떻게 되든지, 되는대로 막의 뜻이 담겨있다。

「아모튼」과 「빨르지」는 사투리다。

신간소개

만국의 노동자여
—백무산 지음

노동자 시인 백무산의 첫번째 시집인 이책은 제1부 「노동의 밥」을 비롯하여 모두 4부, 총64편의 노동시가 실려있다。

이시집은 노동운동의 전개양상과 운동현장의 긴장감, 파탄에서의 노동자생활과 고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면서 노동현실의 열악함과 그 구체적 현장을 추적·고발하고 있다。

<청사퍼냄 값 2천원>

북녘일기
—조명훈 지음

이책은 올해 5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판계전문 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에 서독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조명훈씨가 북한에 1개월여 동안 머물면서 쓴일기문을 엮은 것이다。

일기와 250여장의 사진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상황 전체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산하퍼냄 값 3천5백원>

아르바트의 아이들
—아나톨리 리바꼬프 지음

우리나라 출판사상 최초로 소련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으로 출간된 이책은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에서 태어나 성장한 여러 젊은이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사샤의 인생여정을 통해 이메올로기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열린책들퍼냄값 3천5백원>

문화단신

제1회 통일문화큰잔치
—우리마당 주최

통일운동의 열기를 문화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통일문화큰잔치」가 「우리마당」주최로 오는 9월9일 (금) 부터23일 (금) 까지 15일간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열린다。

분단의식의 극복과 통일에의 지향이란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극공연, 민요발표회, 문학·미술·말글강연회, 통일열원의 시·노래·이야기 마당, 대동제등이 마련된다。

제1회 아시아1인극제
—한국민속극연구소 주최

「제1회 아시아 1인극제」가 오는 9월15일 (목)부터 18일 (일) 에 걸쳐 「바람굴 소극장」에서 열린다。

아시아 문화권 1인극인들의 상호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1인창극 「춘향록」과 중국의 「상섬」을 비롯한 총7편이 공연된다。

꿈꾸는연습

임 한 균 〈 서문·독어2 〉

날씨는 덥고 춤에는 힘이없었다。기본동작 하나하나가 모든 응용된 춤체적인 동작에서 되살아 나야 했으나, 아까부터 휘하니 틀린 느낌의 가슴과함께 아랫배는 그의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꺼꾸러질 만큼 힘이없었다。덧베기의 4박자 가락이 그의 머리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곤 하면 그의 몸동작 역시 어그적거리는 어린아이의 걸음걸이 마냥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지우는 한쪽은허전하고 한쪽은 답답한 심정을 느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늦여름의 더위가 사람들의 매사 일끝마냥 머리속의 상념과함께 불쾌감을 주며그의 몸속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개강을 한지 열흘 남짓, 갈은 과의 친구들과는 이제는 그 빠짐하던 반가움 마저 권태감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입학 시절의의욕이, 그리고 점차 무력감만을 주던그무의 대학생활 속에서 암담구니 어금니를 물면서라도 지켜내려 했던 그 최소한의 의식조차 점점 호지부지 묽어지고 있었다。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재수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길이었는지도모른다는 생각을 했다。입학은, 그리고 합격은 그 겨울 캠퍼스 위에 눈과 함께떨어지는 「Congratulation」이라는 노래가락처럼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마냥 핑크빛 만은 아니었다。그러나 그겨울 캠퍼스 위의 하늘 처럼 그렇게 잿빛으로 물들이기는 싫었고 또 마냥 그렇게 잿빛 실패감 만은 아니었다。

의대,슈바이처 선배에 의해서 시민적 휴머니즘이라고 그리고 미완성의 휴머니즘이라고 비웃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암상한 포르말린 냄새에 자신이 비록 인체수리공으로 전락할 지라도 가고 싶던 유일한 학과였다。

「인간은 타인들속에서, 또는 자신속에서라도 몇개의 카리스마를 세우지 않고는 살수 없는지도 몰라」 지우는 몇가지의 상념들을 다시 생각해 냈다。아버지, 선생님, 그리고 선배 몇가지는 일치 하면서도 몇가지는 상극되는 그 몇명의 카리스마들은 그의 충동작 마냥, 그리고 그의 머리속에서 실타래 처럼 엉켜버린 덧베기의 가락처럼 그를 어지럽혔다。

애시당초 그가 탈반에 들어왔던것은 선학 (仙鶴) 의 내려 앉음 처럼, 또는명인의 손놀림에 사그러지듯 촛불이 꺼진다는 선 (仙) 적인 막연한 동경심 때문은 아니었다。또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웰는 손이……」 따위의 말장난에 현혹 되었던 것은

머머육이 아니였다。그것은 모두가 어울리는 광장의 기쁨과 몇개의 민요조에 곁들 심혈을 쏟아 붓던 선생님, 그 환한 얼굴에 가끔씩 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선생님, 또 하나의 카리스마 때문이었다。

고1때, 그가 생판 관심도 없던 민요반에 문을 두드린 것은 중학교 동창이였던 기영이 녀석의 꼬드김 때문이었다。우리들의 우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비록 반은 다르지만 써클활동만은 같은 곳에서 하자는 기영의 말에 그는 별말없이 기영에게 끌려갔다。그곳에서 신입생과 첫면담을 하는것은 시커멓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곧잘 두려움이나 어색함으로 떠오르는 선배들이 아니라 배지새 양복에 곱상하게 생긴 샘플 선생님이였다。

『양지우』

『네!』

『민요반에는 왜 들어왔나?』

곧잘 심문조가 되기 쉬운 질문을 선생님은 엷은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이끌고 나갔다。

『좋아하는 민요를 하나 불러 봐라』

민요에 대해서 무지함이였던 그의 몇가지 대답에 선생님은 우습다는 식으로 다른 신입생에게 시키지도 않은 것을 시켰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선생님 뒤에서 되도록이면 근엄한 자세로 열중쉬어 하고 있던 선배들이 끼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출삭거리며 민요반에 들어가자고 꼬드기던 기영이 보다 지우의 음성이 보다 민요조에 어울린다는 평을 듣기 시작했다。기영이 굿거리 장단에 자신의 음성을 실어서 걸죽한 선배들의 목소리를 흉내낼려 치면 언제나 선생님은 가락은 맞에 싶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싶는 것이라고 핀잔을 주고는 했다。노래의 가사속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더러는 있었다。

『지잉빌린지자 이일어서고, 푸욱인자 불러나는…』

『기계에 매어달린 못난이내 몸통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무덤열고 나오라 고운 넋들아…』 할 때에는 그날 가슴속에서 울려 나오는 짜릿한 감정이 있고 해서 그것이 인간들 마음 속마다 존재하는 그런 거려니, 아니면 좀더 고상하게 생각해서 국사시간에 배웠던 우리 민족의 한 (恨) 이려니 하고 불러대면 선생님은 귀엽다는 식으로 막걸리라도 한잔쯤 사주고 싶노라 농을하며 대견해 하곤 했다。

일이 터진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녹색의 나무나 잔디보다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직은 더 많은 강남의 신설 학교에서 그리고 여타의 대학 학교보다 치맛바람이 세다는, 그래서 민요반처럼 활동에 전문성을 띠는 써클에 함의 전화가 거칠게 걸려오는 그 학교에서 민요반지도 선생님은 주위 친구들의 쑤근덕 소리와 함께 구속되었다。「민교협」 「민중 교육지」라는 말들이 민요반의 선배들 입에서 불리워졌고, 스대의 무슨 교수가 간첩이라는 등 여기저기에서 끼워 맞을 수 없는 모자이크 그림처럼 풍설이 날자 료다。

제26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스물여섯번째 외대문학상이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우리를 부단히 깨어나게하고 살찌게하는 외대인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 : 10월 31일

▲모집부문 : 시 (3편이상) 소설 (60매내외)
평론 (50매내외) 번역 (60매내외)
희곡 (매수제한없음)

▲접수및문의처 :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심사위원및 상금 : 추후발표

외 대 학 보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럭키가 이끄는 첨단화학의 물결—
新物質·新素材·新資源

"新物質의 창조"
무공해농약은 럭키가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다음 목표는 부작용 없는 제3세대 항생제 —
럭키는 고부가가치의 유익한 신물질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新素材의 혁신"
종류도 다양한 럭키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하는 고기능 신소재입니다.
반도체, 항공기, 우주선에도 쓰이는 첨단신소재!
럭키는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新資源의 개발"
럭키의 화학기술과 유전공학의 만남은
동물성장 촉진제를 탄생시켰읍니다.
럭키는 이제, 새로운 식량자원과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내다보고 있읍니다.

럭키